

만들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 북한정권의 성격 등 이들 열사들이 제기한 문제뒤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사회의 종속적인 현실과 관련해 주권국가로서의 민족자주화, 분단현실과 관련해 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정당한 과제라는 사실이다. 둘째, 설사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헌법이 우리의 국체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의 자유의 보장을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자신과 나아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우리 사회의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순수한 개인들의 생각을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2주제 토론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유선호(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1.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의견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특히 열사 및 희생자문제에 대한 개념정립과 적극적인 조사·연구활동 그리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단일한 단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기념일 지정을 통해 국가적 추모사업을 전개하고 국정교과서에 수록하여 교육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들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현정권이 완전한 민주정부 즉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 뜻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고자하는 집단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정부라고 판단되지 않은 측면이 많고, 따라서 이런 사업을 정부 스스로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반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또한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들을 되새겨 보면, 아직도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이념과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사업의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계획을 구별하여 추진하는 안목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2. 정치권의 과제와 계획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6.10항쟁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이렇다할 사업과 계획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반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정치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되고 성장한데에는 이분들의 기여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리고 계승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민족민주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를 인권보호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보상 등 소극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5.18특별법 등 관련법들의 정비, 국가기념일 지정과 4.19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같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19동지회나 6.3동지회나 하는 정치권인사들이 중심이된 모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래 계승해야할 정신과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관통해온 민주화운동.통일운동의 역사를 재정립해나가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6.10국민항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되어 '6월 민주항쟁 동지회'를 결성하였고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앞으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정신을 기리는 많은 사업들 특히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작년에야 비로소 4.19묘지가 국립묘지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을 계승하는 과제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절차가 완전히 실현되어나가는 과정, 국민적 일치와 과정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외쳤던 6.10항쟁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의문사 자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단 ●

☆ 희생되신 장기수 선생님과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의 명단은 뒤에 실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집계

노동 열사·희생자

70년 전태일
 71년 김진수
 79년 김경숙
 80년 김종태
 84년 박종만
 85년 홍기일
 86년 박영진 변형진
 87년 황보영국 이석규 이석구 박용수 이대용 유인식 이순덕 김현옥 박용선 표정두 김성애
 88년 이대건 김장수 최윤범 장용훈 성완희 이문철 송철순 문송면
 89년 김윤기 김종수 이상남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종하 조정식
 90년 최태욱 이영일 최 동 박성호 원태조 강민호 김병구 오원석 신용길
 91년 석광수 권미경 김처칠 윤용하 정상순 이진희 유재관 김봉환 신용길 금진현 배주영 이광웅
 92년 박복실 강희수 오원석 임희진
 93년 서영호 김주리 고정자 박미경 조경천 임혜란 채희돈 최완용 정명상 정영부 길옥화 박순덕 최 용
 94년 김상욱 최성목 김낙성 엄익돈 윤양덕
 95년 양봉수 박삼훈 조수원 서전근
 96년 김시자 유구영 김왕찬 오용철 박문곤

농민 열사·희생자

85년 엄동익
 86년 오한섭
 88년 김길호
 89년 이찬우 박경희
 93년 김영자
 94년 김순복 손구용

학생 열사·희생자

75년 김상진
 80년 김의기
 81년 김태훈 최종철
 82년 박관현
 83년 황정하
 85년 기 혁 송광영
 86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이경환 진성일

- 87년 박종철 박선영 장재완 이한열 박태영 이재용
- 88년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양영진 유병진
- 89년 남태현
- 90년 정성목 김수경 심광보 최용현 신장호 김기훈
- 91년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손석용 고재욱 류정하
- 92년 박현민 이상렬 윤재영
- 93년 이경동 한상용
- 94년 이창환 신건수
- 95년 장현구
- 96년 진철원 노수석 권희정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 97년 한상근 류재울

도시빈민 열사·희생자

- 89년 이재식 정상물
- 90년 이원기
- 92년 김선호
- 95년 최정환
- 96년 신연숙
- 97년 민병일

재야 열사·희생자

- 82년 기종도
- 86년 강상철
- 87년 채광석
- 88년 신영일 정성규
- 90년 김병곤 조영래
- 91년 김기설 양용찬
- 92년 오원진
- 93년 성순희 김영자 황인철
- 94년 이범영 문익환 이오순 김남주
- 95년 박현재

애국시민 열사·희생자

- 91년 이정순 정상순
- 95년 이형기

열사들의 주장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국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318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가 산화하셨습니다. 이 수치는 유가협과 연대회의에 집계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산화하셨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이 분들은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산화하신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관통하여 산화하셨으며, 이 분들의 주장 또한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열사·희생자들이 산화하실 때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나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열사·희생자들의 죽음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정리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이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수 많은 열사들의 주장을 하나로 모은다면 "자주·민주·통일 조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글에는 열사들이 산화하실 때 주장이 분명한 경우를 실었고 그의 타살된 경우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도 주장의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도상에서 옥사하시거나 사형당하신 분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열사들의 경우 한 분이 여러개의 연관된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각각의 항목에 실었기에 이름이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 (노)노동자, (학)학생, (재)재야, (군)군인, (시)시민, (농)농민, (노점)노점상, (철)철거민

■ 민주화운동

- 김상진(학) 75 "유신독재 타도"
- 김의기(학) 80 "광주학살 자행한 유신잔당 몰아내자"
- 김종태(노) 80 "광주학살 자행한 유신잔당 퇴진, 계엄령 해제, 민주인사와 학생들 석방, 노동 3권 보장하라"
- 김태훈(학) 81 "전두환 물러가라, 광주학살 진상규명"
- 홍기일(노) 85 "전두환독재 타도, 광주시민이며 침묵에서 깨어나라,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에 결사적으로 나서자,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제국주의 몰아내자"
- 송광영(학) 85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 강상철(재) 86 "민주화운동 탄압 중지와 5.18규명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직선제 개헌 단행하라, 민주인사 사면 복권하라"
- 이경환(학) 86 "군사독재 타도"
- 이동수(학) 86 "광주항쟁 되살리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 진성일(학) 86 "건국대학교 농성사건 해명, 군부독재타도, 미제국주의 축출"
- 박종철(학) 87 "수배자 보호"
- 표정두(노) 87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사태 책임지라"
- 이한열(학) 87 "전두환 독재 타도"
- 황보영국(노)87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 박용수(노) 87 "후보단일화하라"
- 박태영(학) 87 "오 자유화여,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교육 실시하라"
- 최덕수(학) 88 "광주민주항쟁의 계승과 국정조사권 발동, 광주를 잊지말자,

광주항쟁 비리주범 노태우를 처단하자,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

- 박래전(학) 88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과소 타도하자, 광주는 살아있다 끝까지 투쟁하자.”
- 조성만(학) 88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광주학살 진상규명 노태우를 처단하자”
- 남태현(학) 89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 군부독재 타도”
- 이재식(노점) 89 “대책없는 노점상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
- 심광보(학) 90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횃불을!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 김병구(노) 90 “노태우정권 퇴진”
- 강경대(학) 91 “학원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 김영균(학) 91 “노태우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
- 김기설(재) 91 “폭력살인 만행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 김철수(학) 91 “노태우정권 퇴진”
- 천세용(학) 91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 박승희(학) 91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 윤용하(노) 91 “노태우정권 타도, 노동해방”
- 이정순(시) 91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
- 정상순(노) 91 “노태우 물러가라, 노동자여 투쟁하라”
- 김귀정(학) 91 “노태우정권 퇴진”
- 양용찬(재) 91 “민자당 타도, UR반대와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 이경동(학) 93 “임용고시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 오영권(학) 96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만세”
- 황혜인(학) 96 “김영삼정권 타도, 노동해방”
- 노수석(학) 96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
- 류재울(학) 97 “미국과 김영삼 정권의 재집권 분쇄”

▣ 정권타도 관련 : 33

▣ 박정희 정권 : 1 ▣ 전두환 정권 : 12 ▣ 노태우 정권 : 16 ▣ 김영삼 정권 : 4
 ▣ 학생 : 22 ▣ 노동자 : 6 ▣ 재야 : 3 ▣ 시민 : 1 ▣ 노점상 : 1

▣ 직선제 개헌, 내각제 개헌 반대 등 관련 : 5

▣ 학생 : 1 ▣ 노동자 : 3 ▣ 재야 : 1

▣ 광주항쟁 관련 : 12

▣ 학생 : 7 ▣ 노동자 : 4 ▣ 재야 : 1

▣ 양심수 석방 관련 : 4

▣ 학생 : 3 ▣ 노동자 : 1 ▣ 재야 : 1

▣ 간략한 분석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열사들이 가장 많이 주장한 것은 정권 타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직선제 개헌, 내각제 반대 등과 연관하여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두 38분의 열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이를 정권별로 구분하여보면 박정희 정권 때가 한 분으로 가장 적은 수효이다. 이 수치는 박정희 정권이 폭압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다 전태일 열사부터 시작된, 분신 항거 투쟁과 같은 치열한 투쟁 방식이 극히 적었고, 당시의 운동 양태가 대중 운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에 비합법 지하운동의 양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15분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산화하였다. 거의 모든 경우가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를 정권타도와 연결지우고 있다. 또한 86년도부터 직선제 개헌 주장이 나왔고, 87년 박종철 열사 살해 이후 전개된 국민 투쟁에 이어 직선제로 개헌된 87년도에 후보단일화 등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분신, 투신 등의 투쟁 형태가 일반화 되고 있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투쟁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광주민중항쟁을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데 대한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권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효인 18분이 산화하였고 그 중에서 16분이 정권타도의 주장을 하였다. 특히 91년도에 11분이 집중되어 공안통치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강경대 열사가 살해된데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권타도의 주장은 김영삼 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출범 초기인 93년에 김영삼 정권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여 집권 후반기인 96년도에 세 분이 김영삼 정권 타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열사들이 산화하신 일년 후인 지금 김영삼 정권 퇴진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생운동의 선도적 투쟁 성격이 확인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 열사가 26분으로 학생운동이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 가장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노동 열사가 8분, 재야 3분, 시민 1분, 노점상 1분으로 뒤를 잇고 있다.

▣ 민주노조 건설

- 전태일(노) 70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 김진수(노) 71 “노조 사수”
- 김경숙(노) 79 “민주노조 사수, 위장 폐업 철회”
- 김종태(노) 80 “광주학살 자행한 유신잔당 퇴진, 계엄령 해제, 민주인사와 학생들 석방, 노동 3권 보장하라”
- 박종만(노) 84 “부당하고 철회하라,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 박영진(노) 86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변형진(노) 86 “부당하고 철회하라”
- 이동수(학) 86 “광주항쟁 되살리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 김성애(노) 87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이석규(노) 87 “민주노조 사수”
- 이석구(노) 87 “민주노조 사수”
- 정경식(노) 87 “민주노조 건설”
- 오범근(노) 88 “파업 지지”
- 최윤범(노) 88 “민주노조 사수 부당하고 철회”
- 김장수(노) 88 “민주노조 사수, 부당하고 철회”
- 송철순(노) 88 “민주노조 사수, 위장폐업 철회”
- 배중순(노) 88 “민주노조 건설”
- 이대건(노) 88 “단체협약 위반하며 민주노조 탄압하는 것에 항의”
- 이문철(노) 88 “부당하고 철회”
- 장용훈(노) 88 “부당하고 철회, 노조탄압 저지”
- 문용섭(노) 88 “회사의 비리 공개”
- 성완희(노) 88 “해고노동자 복직”
- 김종하(노) 89 “부당징계 철회와 민주노조 건설”
- 강현중(노) 89 “부당징계 철회와 민주노조 건설”
- 김윤기(노) 89 “민주노조 사수, 공장 이전 저지”
- 김중수(노) 89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 박진석(노) 89 “민주노조 사수하자, 더이상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싸움을 유발시키지 말라”
- 이상남(노) 89 “민주노조 사수”
- 이종대(노) 89 “부당하고 철회”
- 최성조(노) 89 “민주노조 사수”
- 최태욱(노) 90 “부당하고 철회”
- 박성호(노) 90 “민주노조 사수, 공권력 투입 저지”
- 원태조(노) 90 “민주노조 사수, 공권력 투입 저지”
- 이영일(노) 90 “민주노조 탄압 분쇄”
- 심광보(학) 90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횃불을!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 윤용하(노) 91 “노태우정권 타도, 노동해방”

- 이진희(노) 91 "어용노조 타도 민주노조 건설"
- 박창수(노) 91 "3자개입 금지 철회"
- 정상순(노) 91 "노동자여 투쟁하라, 노태우 물러가라"
- 석광수(노) 91 "민주노조 사수, 지도부 연행 항의"
- 김치철(노) 91 "지·도급제 철폐"
- 권미경(노) 91 "노동 통제 강화 저지, 인간다운 삶"
- 조경천(노) 93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 최완용(노) 93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최성목(노) 94 "민주노조 건설,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거"
- 박삼훈(노) 95 "억압적 노동통제 반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승리하자"
- 양봉수(노) 95 "노동강도 강화 저지, 나는 3만 조합원을 사랑합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나는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 서전근(노) 95 "노조민주화, 부당전출 반대"
- 조수원(노) 95 "병역특례 해고자 복직시켜라"
- 김시자(노) 96 "어용노조 퇴진 부당징계 철폐"
- 황혜인(학) 96 "김영삼정권 타도, 노동해방"

- 노동관계법 관련 : 5
- 부당해고 철폐 : 15
- 민주노조 건설 : 6
- 민주노조 사수 : 19
- 산재없는 세상 : 2
- 위장 폐업, 공장이전 : 3
- 노동강도 강화 저지 : 3
- 노동해방 : 2
- 타 계층 : 학생 3
- 두분 이상 산화하신 해
- ▶ 86년 : 3 ▶ 87년 : 4 ▶ 88년 : 10 ▶ 89년 : 8
- ▶ 90년 : 4 ▶ 91년 : 7 ▶ 93년 : 2 ▶ 95년 : 2

■ 간략한 분석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분신한 이래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주장을 하신 분이 5분에 이른다. 이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민주노조를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내용을 사용자들이 준수하도록 하자 이 법안들을 개악해 버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용노조를 타도하거나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민주노조 건설과 민주노조를 탄압으로부터 지켜내고 강화시키겠다는 주장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자행되는 부당해고에 대한 징계 철폐 주장 또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노조와 관련된 주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많이 조직되고 민주노조 운동이 활성화 되자 정권과 자본에 의한 탄압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면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관련된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동강도 강화가 신중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족 교육

- 기 혁(학) 85 "독재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 홍기일(노) 85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에 결사적으로 나서자, 광주시민이며 침묵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제국주의 몰아내자"
- 송광영(학) 85 "학원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 이동수(학) 86 "어용교수 물러가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 박선영(학) 87 "비민주적 학사운영 및 미제국주의 매관세력의 지배를 받는 암담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여 항의"
- 박태영(학) 87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교육 실시하라, 오 자유화여,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 김용갑(학) 90 "사학비리 척결, 학원 자주화"
- 김수경(학) 90 "전교조 관련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반대"
- 심광보(학) 90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깃발을!"
- 정성목(학) 90 "전교조와 관련하여 교육방법 개선하라"
- 강경대(학) 91 "학원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 김철수(학) 91 "잘못된 교육 거부, 노태우정권 퇴진"
- 이경동(학) 93 "임용고시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 한상용(학) 93 "초등교육 개혁과 교대교육 정상화"
- 장현구(학) 95 "파행적 학원운영 중지"
- 노수석(학) 96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
- 진철원(학) 96 "학원자주화"
- 권희정(학) 96 "등록금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원 자주화투쟁"
- 박동학(학) 96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 척결, 학생자치권 쟁취, 조국통일 완수"

- 교육정책 관련 : 8
- 학원안정법 반대 : 2
- 어용교수 퇴진 : 1
- 비민주적 학사운영 : 4
- 전교조 관련 : 3
- 학원자주화 : 5
- 타 계층 : 노동자 1
- 고교생 : 4
- 두분 이상 산화하신 해
- ▶ 85 : 3 ▶ 87 : 2 ▶ 90 : 4 ▶ 91 : 2 ▶ 93 : 2 ▶ 96 : 4

■ 간략한 분석

민족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은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전의 학도호국단 체계를 총학생회 체계로 탈바꿈하여 사학재단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 어용교수 퇴진 등 학원자주화 투쟁을 벌려 나갔고 10분의 열사가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였다. 85년들어 대학가의 집회 및 시위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학원안정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를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열사들의 주장으로 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이 노동 열사로부터 비롯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 전교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4분의 고등학생 열사가 전교조 관련 주장을 한 것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 산화하신 열사의 주장이 교육 정책에 관련된 주장이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장은 역대 정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8분이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였는데,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각 학교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벌려 나가던 것을 한층원 차원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바꾸는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 반미 자주자주화, 조국 통일

- 황정하(학) 83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저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투쟁"
- 이재호(학) 86 "반전반핵 양키고흙,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 김세진(학) 86 "반전반핵 양키고흙,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 이동수(학) 86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 진성일(학) 86 "미제국주의 축출, 건국대학교 농성사건 해명, 군부독재타도"
- 장재완(학) 87 "민족 해방, 조국 통일"
- 박선영(학) 87 "미제국주의 매관세력의 지배를 받는 암담한 조국의 현실과 비민주적 학사운영"

- 조성만(학) 88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양심수 석방하라"
 최덕수(학) 88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 광주민중항쟁의 계승과 국정조사권 발동, 광주를 잊지말자, 광주항쟁 비리주범 노태우를 처단하자,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양영진(학) 88 "통일된 조국의 산하에 실하다 실하게 뿌리박은 진달래가 되고파...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통일벽 가로막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물러가라, 미국놈들 몰아내고 사람사는 세상 건설하자."
 최 동(노) 90 "미제와 적들의 탄압을 고발한다"
 박승희(학) 91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손석용(군) 91 "같은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미제의 용병 역할 거부"
 양용찬(재) 91 "UR반대와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
 이정동(학) 93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임용고시철폐"
 오영권(학) 96 "조국통일 만세, 미제축출, 김영삼 타도"
 박동학(학) 96 "조국통일 완수,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 척결, 학생자치권 쟁취"
 류재술(학) 97 "미국과 김영삼 정권의 재집권 분쇄"

■ 미국축출 : 12 ■ 미국의 용병 역할 거부 : 4 ■ 반전반핵 : 2 ■ 조국통일 : 5
 ■ 두분 이상 산화하신 해
 ▶86 : 4 ▶87 : 2 ▶88 : 3 ▶91 : 3 ▶96 : 2

■ 간략한 분석

분단된 조국의 현실로 말미암아 조국통일 도상에서 희생된 분들이 102분이나 된다. 이 수치는 그나마 집계된 수치이고 옥중에서 희생되었거나 이후 그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운명하신 분들에 한정된 수치이다. 이 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조국통일에 대한 주장이 가장 많게 된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하면서 반미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토대 위에 조국통일에 대한 주장이 터져나와 온 나라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심어 놓아 조국통일이 몇 해 안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 민중 생존권

- 오한섭(농) 86 "무책임한 영농정책에 분개"
 김길호(농) 88 "농산물 제값 받기 투쟁"
 이재식(노점) 89 "대책없는 노점상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
 이원기(철) 90 "강제 철거 저지"
 김선호(철) 92 "강제 철거 저지"
 최정환(노점) 95 "살인적인 노점상 탄압에 항거"
 이덕인(노점) 95 "노점상 탄압 저지"
 신연숙(철) 96 "강제 철거 저지"
 민병일(철) 97 "주택 철거와 노점 철거 저지"

■ 간략한 분석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심화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의해 농민 열사들의 주장이 활발하였으며,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노점상, 철거민 등 기층민중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 졌다. 이는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어 중산층

과 기층 민중을 격리 시켰으며 기층 민중에 대한 탄압이 극대화되었다.

◁표1▷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계층별 분류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노동자	학 생	농 민	빈 민	시 민	제 야	장기수	군 경	합 계		
박 정 회 정 권	1960년대						18		18		
	1970	1							1		
	1971	1					1		2		
	1972						4		4		
	1973					1	4		5		
	1974						6		6		
	1975		1				12		14		
	1976						4		4		
	1977						4		4		
	1978		1				3		4		
1979	1					3		4			
소 계	3	2				2	59		66		
전 두 환 정 권	1980	1	1				1	5		8	
	1981		2				2		4		
	1982	1	1				1	1	1	5	
	1983		1				1	6		8	
	1984	1							1		
	1985	1	2			1	2		6		
	1986	3	8			1	1	2		15	
	1987	12	5				1	4	9	31	
	소 계	19	20			2	4	17	16	78	
	노 태 우 정 권	1988	10	4	1			3	4	3	25
1989		10	3		2			2		17	
1990		8	7		1		2	1	2	21	
1991		11	8		1	2	3	3	4	32	
1992		7	3		1		1	3		15	
소 계		46	25	1	5	2	9	13	9	110	
김 영 삼 정 권		1993	11	2	1			2	3		19
		1994	4	2	2			4	1		13
		1995	4	1		2		1	2		10
		1996	5	6		1			2		14
	1997		2		1			1		3	
소 계	24	13	3	4		7	9		59		
년도미상							4		4		
합 계	92	60	4	9	4	22	102	25	318		

◁표2▷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분신	할복	투신	타살	음독	목매	옥사	의문사	병사	사고사
1960년대							18			
1970	1									
1971				1			1			
1972							4			
1973							4	1		
1974							6			
1975		1					12	1		
1976							4			
1977							4			
1978							3	1		
1979			1				3			
소 계	1	1	1	1			59	3		
1980	1		1				5	1		
1981			1				2		1	
1982							3	2		
1983			1				1	6		
1984	1									
1985	2			1			2	1		
1986	8		1		1		1	3	1	
1987	5			3		2	4	10	1	6
소 계	17		4	4	1	2	18	23	3	6
1988	9		1	1			2	6	3	3
1989	9			2			2	2		2
1990	6		3	1	1	2		3	3	2
1991	12		1	2				6	6	5
1992								2	13	
소 계	36		5	6	1	2	4	19	25	12
1993	3								13	3
1994	1							1	7	4
1995	5					1		1	3	
1996	6			2					5	1
1997	1			2					1	
소 계	16			4		1		2	29	8
년도미상							4			
합 계	70	1	10	15	2	5	85	47	60	26

◁표3▷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시민	재야	군경	장기수
분신	37	25		2	2	3	1	
할복		1						
투신	3	6					1	
타살	4	6	1	3	1			
음독		1	1					
목매	1	1		1			1	1
옥사		1				1		83
의문사	9	8		3		5	22	
병사	23	4	1			11		18
사고사	15	7	2			2		

□ 분신 중에는 분신 후 투신한 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옥사에는 전향과정에서 지조를 지키다 살해된 경우가 많이 있고, 감옥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운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의문사는 모두 타살의 범주에 속하나 살해자가 은폐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옥중희생자 및 운명하신 장기수선생 명단

민가협 자료의 도움을 받아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집계

- 년도미상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전순직 김도한
- 61년 조봉암 최백근 조용수 최근우 정순종
- 65년 박재복
- 69년 권재혁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묵
손순남 윤성만 이양섭 최종천 최한무
하상혁 황대연
- 70년 권오금
- 71년 김대석
- 72년 고봉을 이연송 한태갑 한현수
- 73년 김영환 김태선 김영호 조인국
- 74년 김태원 박운엽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명원
- 75년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송상진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장석구 기세일
신춘복 하야청
- 76년 공재용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 77년 김경익 김홍직 백갑기 안준호
- 78년 박정래 이훈동 탁해섭
- 79년 손순영 송순희 임창규
- 80년 김규창 김승윤 김용선 변형만 노천도
- 81년 이재문 최점수
- 82년 신향식
- 83년 신창길
- 85년 이용운 황필구
- 86년 전재권 강동창
- 87년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 88년 유진곤 공인두 박창술 윤기남
- 89년 이상을 조용순
- 90년 정대철 김병인
- 91년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 92년 박판수 김대봉 이태영
- 93년 이래선 현승종 권두영
- 94년 김광삼
- 95년 정종서 강철순
- 96년 김도한 문한영
- 97년 권양섭

옥중희생자에 관한 도움 자료

[자료 1]

옥중 비전향 장기수 전향 공작 과정

김하기 - '완전한 만남' 중에서

1973년 9월 23일 오전.
특사의 백여명의 정치범·장기수들은 느닷없이 돼지몰이를 당해 교회당(敎誨堂: 소내 강당. 일반적으로 종교행사나 기념행사가 치러진다)으로 쫓겨갔다. 보안과 간수와 교무과 직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면서 특사에서 내쫓아 교회당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최해종씨는 무질서한 대열에 떠밀려가면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8.15 어간부터 전직 형사와 정보원 등 인간말종 부스러기를 끌어모아 전향공작 전담반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기어코 일을 낼 모양이구나.'
장기수들은 등반이가 떨어져나가고 다리가 맞지 않아 빠져거리는 퇴락한 장의자에 앉혀져 불길한 예감을 누르느라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조용히 해!"
전담반 교회사인 박형귀가 45구경 리볼버 권총을 척 뽑더니 허공에 대고 빈총을 칠척칠척 쏘면서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전향을 거부한 비전향수였다. 그러나 오늘은 비전향수에서 전향수로, 빨갱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날이다. 작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국민들의 무분별한 통일열망으로 멸공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해졌다. 우리의 영도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를 우려하시고 10월유신을 단행해서 나라를 제 궤도에 올려놓으신 뒤 곧바로 전향공작 전담반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셨다. 남한에 있는 비전향수도 전향시키지 못하는 데 어떻게 북의 이데올로기를 깨부술 수 있겠느냐는 이유였다. 그런데 오늘 비전향수 모두를 100%로 전향시키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 100%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전향시키라는 말이다. 난 구차한 말꾼 더더기를 싫어한다. 여러분에겐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전향해서 사느냐, 전향을 거부하고 죽느냐의 두 가지 선택 뿐이다."
보리 까끄라기가 낀 듯한 그의 말에는 극도의 자신감과 옥박성으로 가득차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최고권력자로부터 직접 명령을 하달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세명의 떡봉이들이 박선생을 끌고 간 곳은 특사 구석의 조그만 방인 소지간이었다. 한평도 채 안되는 이 방은 그나마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윗공간을 비스듬히 깎아먹어 한층 비좁게 된 방이었는데 소지들이 청소도구나 식기등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방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한가운데는 소위 칠성판이라는 조그만 고문용 탁자가 술상처럼 조용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이 아직 굶는 국에 장맛을 모르는 모양인데, 똥구멍에 장물이 나오도록 짜버리자구!"
박선생은 온몸이 발가벗겨져 칠성판에 꽂꽂 묶였다.
"먼저 매타작으로 초다듬질부터 해놓고 시작하지."
고영재가 소지간에 비스듬히 세워둔 웅이 박힌 소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도끼로 장작 패듯 알몸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황토빛 아름다운 육체가 순식간에 시퍼런 풀밭으로 명들어버렸다. 그러나 박선생은 표정하나 흐트리지 않았으며 신음소리 한마디 흘리지 않았다.
"지독한 녀석인데, 물고문으로 넘어가야겠어."
고영재가 이마에 땀물을 닦아내며 씩씩거렸다.

“좋아. 물은 내가 먹이지.”

도룡이가 두뇌들이 백철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고춧가루를 한주먹 넣었다.

“양념을 제대로 해야 물맛이 좋거든. 자, 간첩선생! 전향하겠다고 말하기 거부하면 손가락만이라도 까딱까딱 하라구. 그러면 우린 전향의사로 받아들이고 즉시 고문을 중지할 테니까!”

도룡이는 흰 손수건으로 박선생의 얼굴을 가리고 코끝을 향해 주전자의 끝을 기울였다.

고문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바늘로 찌르기, 비행기태우기, 손가락꺾기, 관절뽑기, 비너긋기, 쇠줄로 공중에 매달기. 급기야 불에 달군 연탄집게로 살지지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떡봉이들도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고문들과 약간은 낮익어 있었으나, 이들이 서투르게나마 유감없이 고문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벌써 몇주일 전부터 전직 형사였던 교회사로부터 20여 가지의 고문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선생은 인간 인내력의 한계를 넘는 고문에도 시종일관 처절할 정도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고통이 격심할 때는 가벼운 미소마저 지어 보여 떡봉이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는 마침내 죽음의 때와 장소를 만났으며 사랑하는 조국에 바칠 것은 자신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박선생은 다소 주관적이고 자기가학적이던 죽음의 미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죽음이 가진 너무나 큰 의미에 비해서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해오던 그에게 기나긴 살인고문의 시간이 닥쳐온 것이다. 죽을 때와 장소를 발견하면 죽음을 이마 정면으로 직시하고 한치도 옆으로 비켜나지 않는 것이 혁명가의 제1조건이라고 다짐했던 그에게 죽음의 시간은 너무도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 같았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꼬챙이가 아랫죽지에 꽂혀 살을 태우며 식어갈 때 그는 그만 전향하겠다고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싶은 최후의 유혹이 몽롱한 의식을 뒤흔들었다.

개삼살이는 고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껄여대었다.

“이놈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누가 알아주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개죽음이라고? 정말 쓸쓸하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 고통을 느끼기보다 왜 이리 외로운가.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최후로 한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로움을 호소한 게 아니었던가. 폐쇄된 특사 속에서도 후미진 밀실! 나의 죽음을 증언할 그 무엇도 없구나. 수억개의 눈을 가진 역사도 여기는 비켜 흐르는구나. 저 누렇게 맥없이 비치는 30축짜리 알전구가 나의 죽음을 증언해줄까?’

박선생은 살이 타는 고통의 구멍 속에서 오히려 진한 인간적 외로움의 냄새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독립군이 만주별판에서 이름없이 죽어갈 때 얼마나 쓸쓸했을까? 과연 그들은 책에서처럼 다가올 조국해방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죽어갔을까? 아! 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순간 찬물이 얼굴에 확 끼었어졌다. 도룡이가 플라스틱 대야의 세수한 물을 의식이 가물거리는 박선생 얼굴에 들이부었던 것이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한순간이나마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승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였구나. 나의 죽음의 미학은 어디 갔는가. 통일조국에 대한 나의 불같은 염원은 어디 갔단 말인가!’

너울거리는 생의 아지랑이가 얼어지고 완성의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박선생은 최후의 의식을 정리해보았다.

‘떡봉이들아, 이 땅의 어둠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날 이렇게 고문하지만 네들도 간악한 미제와 그 하수인들의 희생물들이다. 이렇게 철모르고 미쳐 날뛰며 고문하는 너희들도 실상은 고문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배후에서, 아니 배후의 배후에서 같은 동포를 이간질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만드는 하얀 손들이 내놈들의 명줄을 졸라매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이번 싸움에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들은 우리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흉악한 너희들을 내세워 몽둥이로 그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그 폭력과 폭압의 크기만큼 그들의 논리는 패배하고 있는 거지. 떡봉이들아, 분단조국의 못된 아들들아. 통일된 조국에서 부끄럽게 살아갈 못한 놈들아!’

박선생은 마지막 한오라기의 삶의 에너지를 뽑아올려 밀실의 어둠을 찢으면서 소리쳤다.

“조국통일 만세!”

박선생의 차마 감지 못한 눈동자엔 도살된 소의 까뉘집힌 눈빛이 아니라 푸르게 갠 하늘을 보는 듯한 해맑은 청기가 감돌았고 아직도 핏기가 가지지 않은 붉은 입술엔 한가닥 슬픈 미소의 꼬리가 물려 있었다.

박석기씨를 비롯한 수많은 장기수·정치범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무과장의 손에서 심장마비로 처리되고, 시체는 가마니에 둘둘 말려 교도소 뒷문으로 빼내어져 팻말도 없이 뒷산에 묻혀 한삼의 거름으로 잊혀져갔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 어느 하나도 항의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았다.

박용서씨는 흉악범들이 무수히 질러대는 바늘 끝에서 한참은 20년의 징역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칸막이 운동장에서 풍뎉 목인 채로 도룡이에게 온몸을 찢리고 난 다음 거의 죽은 몸으로 방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당한 고문 사실을 옆방 양선생에게 들을 두드려 타전하다가 기력이 떨어져 죽어갔다.

[자료 2]

인혁당 사건

◆다음 글은 제2차 인혁당 사건의 진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글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전재한다. 이 글은 신동아 85년 9월호에 이상우씨가 기고한 글이다.(년도 표기는 97년 현 시점으로 바꾸었습니다.) ◆

박정권 18년을 통하여 가장 오랜 기간과, 그리고 가장 많은 의혹과 물의를 빚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인민혁명당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대로 처리된 것이었다.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제1심, 항고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처리된 사건이었다.

그러했는에도 불구하고 인혁당사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외로부터 심한 의혹을 샀다. 일부 사람들은 인혁당사건이란 조작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과연 그러했을까?

관련 피고인 8명이 처형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된지 22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인혁당사건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않다. 뭔가 꺼림직한 여운을 그대로 끌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처형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아직도 웅어리진 한을 품고 세월을 살고 있다.

33년 전의 첫번째 인혁당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것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4년 8월 14일이었다. 이날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소집,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 했다. 김형욱 부장이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이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중,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탁,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평화통일을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다.

인혁당은 창당후 조직을 확대해오다가 1964년 4월 북괴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동당 중앙상임위원회인 도예중,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 학생대모를 유발토록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대모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 했다.

인혁당은 학생, 언론인등을 포섭,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대모를 계속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조직망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대모 주동자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

당시 인혁당사건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도예중(40.무직), 박현채(30.서울상대강사), 정도영(39.합동통신 조사부장), 이재문(31.『대구매일신문』기자), 허탁(31.부산성래국민학교교원), 박상홍(45.서적상), 김경희(27.민중서관원), 전무배(33.『서울신문』기자), 박중기(29.한국여론사 취재부장), 양춘우(29.무직), 서정복(24.서울문리대 철학과 4년), 김정강(24.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정남(22.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중태(24.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현승일(21.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도현(21.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승균(26.성균관대 동양철학과 4년).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다가 64년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보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이로 말미암은 검찰내부의 분규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설이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의 담당 검사진은 이용훈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최대현검사, 김병우검사, 장원섭검사였다.

그들은 만 18일간 거의 철야로 수사했다. 그 결과는 중앙정보부의 송치 결과와는 달리 기소할만한 내용의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의 두번째 사건

유신 2년째 접어든 그해 정국은 재야세력과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 때문에 소란하기 그지 없었다. 일부 언론인, 문인, 대학교수, 종교인, 재야정치인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가는 반정부 데모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정부는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비상권한인 긴급조치권의 발동으로 이를 봉쇄하려 했지만, 반체제의 불길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74년에 들어와 「3.4월 위기설」이 떠도는 가운데 4월 3일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반정부 데모가 터졌다. 이들이 살포한 선언문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란 명의로 되어 있었다. 바로 이날 정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다.

그 내용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박대통령은 「작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화 양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이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절차에 따라 긴급조치를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재건위 조직과 재일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이들은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 민청학련의 배후 주동인물로는 ① 전인혁당당수 도예종과 여정남 등의 불순세력, ② 재일조총련 비밀조직의 조원인 광동의와 광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胎塗舛癡와 ??? 등 일본인 2명 ③ 기독교학생총연맹 간부진 ④ 이철, 유인태 등 주모급 학생운동가와 유근일 등이다」

10년만에 재현된 인혁당사건의 내용

10년만에 인혁당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었다. 혐의사실도 10년 전의 것과 거의 똑같았다. 현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배후 조종자가 이번엔 인혁당뿐만 아니라 재야 각계가 거의 망라 되다시피 광범위했다는 점이 달랐다. 전 대통령 윤보선씨를 비롯하여 김찬국 교수,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등도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자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를 포함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천 24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서 재판에 회부된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52.무직), 도예종(50.삼화건설 회장), 하재완(43.무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장사), 김용원(39.경기여고교사), 우홍선(45.한국골프스텝사 상무), 송상진(46.양봉업), 여정남(30.무직), 김한덕(블록제조업), 유진곤(대산목재사장), 나경일(노동), 강창덕(무직) 김종대(일어학원원장), 전창일(극동건설 외공부장), 황현승(광신상업교사), 이창복(무직), 조만호(학교도서보급), 정만진(목욕업), 이재형(가전사), 임구호(고려학원장사) 등 23명이었다. 당시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밝힌 인혁당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의 조직과 활동상황은 1964년 6.3사태 배후조종자로 인혁당관련자들이 검거됨으로써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김상한과 재정책 김배영이 1962년 5월, 월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된 자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설을 유포, 범정투쟁을 통해 극히 경미한 형을 받았다.

그뒤 1967년 김배영이 인혁당 재건 지령을 받고 다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되어 인혁당의 진상이 뒤늦게나마 입증되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인혁당은 그뒤 지하로 잠복했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포파동, 개헌청원서명 등이 일어나자 제 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장,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재건을 완료하고 학생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6월 15일부터 시작, 비상보통 군법회의, 비상고등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인혁당 관계에 관한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특히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피고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형에 변함이 없었다.

고문설을 둘러싼 공방전

인혁당 사건을 둘러싸고 또다시 고문에 의한 조작설이 분분하게 나왔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가족들에 의해 고문설이 알려졌다. 다만 긴급조치하의 통제된 언론풍토와 대공관계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와 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는 소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맨처음 고문과 조작설을 대담하게 터뜨리면서 항의하고 나선 사람은 외국의 목사와 신부들이었다. 「조지 오글」목사와 「제임스 시노트」신부 같은 외국 종교인들이 기도회나 반체제 집회 같은 곳에서 인혁당을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에 대한 고문설을 극적으로 전한 사람은 시인 김지하였다. 그 자신 민청학련 사건 배후조종자로 재판에 회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씨는 「동아일보」 2월 16일자에 실린 옥중수기 「고행 - 1974」에서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인혁당관련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전했다. 김씨는 이 글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었다.

그 무렵부터 인혁당사건의 고문조작설은 재야세력, 종교계에서 파다하게 떠돌아 다녔다. 민주회복 국민회의 같은 재야단체는 「김일성 지령에 의해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도 없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개재판과 사건진상 및 고문사례진상을 관민 합동으로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했다. 기도회에서 피고인 가족들은 여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이 분분한 의혹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혁당관련자들이 발뺌을 위해 고문설등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강경자세

정부측의 이같은 강경자세 속에서 대법원은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의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인혁당 관련피고인들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례적인 사실은 대법원판결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군법회의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지 5일 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정판결 바로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 케이스는 극히 드문일이었다. 이 때문에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시체를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실랑이도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

다음은 75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8분중 우홍선 열사의 부인이 사건 12년이 지난후에 쓴 호소문이다.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자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스러져갔습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도 어마어마한 죄명들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고 또 풀려나고 사면되고 복권되고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법의 유희를, 변화무쌍한 이 세태를, 우리 유족들은 수없이 거듭 찢긴 가슴을 아파하면서 너무 부러워서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 이후 또 많은 2,335명이란 수치의 내란음모에서 부터 별의별 사건의 주인공들이 사면복권되는 이 마당에서도 유독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온천하가 모자라면 전세계가 다 알고있는 너무 억울하게 희생된, 너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된 정치적 재물 입을, 더욱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잘 알고 있을 이 사건을 사면, 복권, 보상에서 제외하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슨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가 실현될 가망이라

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을 이대로 묶어 사장해서 발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 어느 누가 민주화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민주화를 부르짖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었던들 무슨 민주화 정치를 할 것입니까.

1977년 당시 통일당에서 발간한 "민족의 행진"이란 책자에 실린 그 당시 탄압받고 있는 양심인들 명단에서 인혁당사건에 묶인 인사중에서도 유독 죽은 분들 8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양일동당수(지금은 고인)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했느냐고 울부짖으며 항의 했을 때 잊어 버리고 누락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한 웃지 못할 웃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사면, 복권, 보상에서도 잊어버리고 누락된 것은 아닌지요? 복권, 사면, 보상을 결정짓는 여러 형태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칭 인혁당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요? 박정희가 자신의 실책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 8명을 사형시킨 일이라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전 윤보선 대통령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현정권이 유신정권의 연장이 분명 아니고 진정 민주화를 향한 참신한 정권으로 변신을 하였다면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죽자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만약 우리를 사면, 복권, 보상할 수 없다면 유신정권과 같음을 시인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죽여 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는 박정희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년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빨곤 하였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푸른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으라!"하고 외쳤습니다. 한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번씩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디. 박정희는 머리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여 신문에 난 머리를 꼭꼭 씹었기 때문이라고 꼭 믿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 같지가 않았습니디. 저희 남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했다 해도 내가 누명을 벗길 수 없어 죽었다면, 억울해도 모든 현실을 받아들 수밖에 없으나 남편의 무죄를 다 밝히고 조작한 정보당국에서도 할 말이 없었는데 사람은 죽여버리다니, 이게 어디 범치국가며 사람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에게 인혁당이 조작임을 폭로하면서 "나를 못 믿겠으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나를 고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한 이말을 당신 아닌 10명에게 이야기하고 그들 10명보고 또 다른 사람 각각 10명에게 이야기하자"고 울부짖으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경찰서나 파출소앞에 버리지 않았습니디. 하나같이 집앞까지 위로하여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에는 이젠 "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매주 산소에 가서 울부짖던 일도 그만 두고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면 내 억울하게 죽은 남편도 사면, 복권, 보상을 떳떳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천하가 민주화 물결이고, 죄없는 양민을 8명이나 재심청구의 기회도 주지않고 이웃나라들에게 야만인이라는 평을 들어가며 새벽에 학살한 원흉 박정희도 제명에 못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에게 죽고 없는 이마당에서도 온천하가 다 아는 조작된 인혁당사건을 모른체 외면 한다면 이는 거짓 민주화 그리고 유신정권의 연장임을 인정한 소치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유신정권의 연장이 아니고 민주화를 선언하고 외치는 정권 내지 정당들이라면 하루 속히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인사들을 사면, 복권, 보상 하십시오.

1987. 8 세칭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우홍선의 처 강순희

의문의 죽음

[자료 1]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세상의 모든 죽음들치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가장 원통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권에 의해 그 진상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 집계한 바로는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48분에 이른다.

1. 의문사의 유형

이 분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 안기부, 보안사 등에서 자행한 것이 확실시되는 정치적 타살이 11분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운동을 했다 하여 징집 영장도 없이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는 강제 징집 행위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끌려가서 보안사에서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요구하는 '녹화사업'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6분이 자살로 위장되어 살해되었다. 공식적인 녹화사업 폐지 이후에도 보안사의 이와 같은 공작 의해서 5분이 또다시 살해되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조합활동과 시위 등으로 공권력과 자본에 의해 13분이 살해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운동 과정과 특별한 연관을 갖지는 않았지만 불의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로 애국 시인이 2분, 애국 군인이 11분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체 의문의 죽음 가운데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독재 정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살해자의 철저한 은폐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포자기 하였으며 비판 자살, 또는 단순 사고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에 자행된 애국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박정희 정권 때 수많은 장기수선생님들이 고문을 동반한 사상 전향 과정에서 살해되었으나 단순 옥사로 처리된 것들이 다 이에 해당된다.

2. 의문사의 원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첫 째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기독교 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테러리즘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각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 그리고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 세력의 사상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집단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양태는 일제시대 때부터 자행되어 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 전향 행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에 기인한다. 여기에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행한 고문 기술이 보태졌고 이후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그 형태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것은 공권력 외에도 기업이나 사학재단 등도 마찬가지로 자행하고 있다.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구사대,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노조, 학생회, 철거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말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의문의 죽음이 갖는 지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 한다. 수많은 열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지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억압과 착취의 세상을 해방 세상으로 바꾸려는 시위도중 운명하신 분들과 같이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다.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의문의 죽음들

우리는 단순 의문사로 기록될 뻔한 박종철 열사를 기억한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 소리를 내며 죽었다.'며 은폐하려던 것이 물고문 전기 고문에 의한 살해 행위로 드러나자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급기야는 6·10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최루탄에 맞아 운명한 이한열 열사와 4·19 혁명 당시의 김주열 열사, 그리고 쇠파이프에 맞아 살해된 강경대 열사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와 같이 의문의 죽음들은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인을 단순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해 버린다.

소위 문민정부라하는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점상 강제 철거에 대응하다가 양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다에서 떠오른 이덕인 열사,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 투쟁 중에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살해된 노수석 열사, 철거 투쟁 중 경찰에 의해 타살된 민병일 열사, 그리고 경찰의 쇠도리깨까지 동원한 살인적인 폭력 진압 과정에서 살해된 류재을 열사가 바로 그 분들이다. 류재을 열사는 살해된지 60여일 만인 5월 24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이 것으로 볼 때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의문의 죽음들은 경찰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학생운동권과 노점상, 철거민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진상 은폐의 수단

법의학에서는 '시신은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명제가 있다. 그 만큼 부검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정치적 성격을 띤 의문의 죽음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만 갖추고는 서둘러 시신을 화장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녹화사업에서 희생된 분들과 김용갑, 우종원 열사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던 것이 이제는 부검을 진실 은폐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창수, 이철규, 이내창, 이덕인, 노수석 열사까지 모두 다 그렇게 부검이 은폐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부검이 진실 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으로 70 노파의 살해범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지만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조작까지도 하였다. 이철규 열사의 경우에는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여 부검 결과를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국과수에 대한 이러한 불신으로 부검을 국과수 외의 다른 곳에서 하려 하나 거부되고 있고, 부검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부검의를 직접 참여시키려고 하나 이 것도 입회에 그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류재을 열사의 경우 부검을 거부한 것이다. 진상 은폐의 또 다른 수단으로 목격자들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그 정권에서 자행된 의문의 죽음은 그 정권 하의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불신으로 확대된다.

6. 진상 규명을 위하여

그 동안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 ① 84년 강제 징집 희생자 진상 규명 노력
- ② 88년부터 89년 사이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 규명 요구하며 135일 동안 농성
이에 따라 89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 문제 거론
- ③ 90년부터 의문사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10만명 서명

- ④ 국회 청원과 시위 -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
- ⑤ 이철규열사 사인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
- ⑥ 이내창열사 사인 진상 규명 노력 (한겨레신문과 안기부와의 법정 투쟁)
- ⑦ 김용갑, 박창수, 이덕인 열사 등 사인 진상 규명 노력
- ⑧ 김상원 동지 유가족의 노력으로 진상 규명
- ⑨ 유가족 의문사지회에서 개별 청원

이 과정에서 진상 규명이 된 경우는 김상원 동지, 한 경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을 여전히 남겨둔채로 차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그 죽음들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죽음을 발생시킨 시대적 배경을 청산하는 길이다.

먼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을 가진 특별 검사제가 채택 되어야 한다.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기에 유가족 측과 인권 단체, 법의학자, 변호사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뿐 아니라 옥중 희생자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 전반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문의 죽음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집시법은 물론 철폐되어야 하며,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점상, 철거민들을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내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당국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살아 남은 자들은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안기부 · 보안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인대회

■ 최종길(42세)

- 1932. 4. 28. 충남 공주 출생.
- 1955. 3. 서울대 법대 졸업.
- 1955. 5. 7.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
- 1958. 6. 2. 서독 쾰른대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
- 1962. 서울대 법대 교수.
- 1973. 10. 16. 중앙정보부에 출두.
- 10. 19. 의문의 죽음을 당함.

중앙정보부는 73년 10월 25일 [유림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는 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교수 최종길씨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해명은 최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정권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간첩단 조작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최씨가 출두하기 이전 동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다녀온 것으로 사건 조사가 꾸며져 있었고, 투신했다는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부검을 완강히 거부한 속에서 유가족을 협박해 장례를 급히 치루게 만든 점은 고문에 의한 타살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1988년 10월 19일 故 최종길 서울법대교수의 죽음 15주기를 맞아 평화신문에 실린 '15년 간헐 죽음, 이젠 풀어야 한다'를 축약한 것이다.

1973년 10월 16일 오후 2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이던 간첩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동베를린에 갔다온 것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용변 중 7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1973. 10. 19. 오전 1시 30분 자살하였다고 유가족을 기만하고 강압하여 서둘러 비밀리에 장례를 치르게 했다. 장례가 끝난 뒤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고 다르게 발표했다.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 요구가 교수, 사제단, 재야 인권운동 부문에서 높아져 갔으나 중앙정보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망한 일이었다고, 88년 '서울의 봄'이 잠시 왔을 때 서울법대학생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준비되었으나 5.17로 또다시 무산되었다.

박정희정권이 쿠데타를 집권한 이래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 당당한 권력기관이 되어 외국에까지 악명높은 비밀경찰조직으로 널리 알려졌다. 1972년 10월 유신정변이후 학원에서 유신반대투쟁이 서서히 조직되기 시작했고, 1973년 8월 8일에는 김대중 전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의 이목이 박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집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력로서는 국내외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었고 학원의 반유신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다.

그 때 수사하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과 그 사건에 최종길 교수의 의도적으로 접합시킨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이 사제단의 견해이며, 또 대부분의 관심있는 내.외국민의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

보부에 가기 며칠 전 교수회의 석상에서 학생들의 처벌에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중앙정보부에 항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족이 확인하여 기록한 양심선언에 의하면, 간첩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최 교수가 연행되던 10. 16일 이전에 완전 종결되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신 자살 운운하며 최교수에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가 허구요 거짓임을 입증하는 사실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간단히 살펴보자.

1) 최교수가 죽고난 뒤 중앙정보부측이 가족에게 말한바가 '동베를린엘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고 했다가 '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로 둔갑했는가 하면, 공식발표문에는 '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 등으로 황실수설 반복하고 있다.

2) 가족에게 투신자살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10. 19일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에 근무중이던 최종길 교수의 친동생 최종선씨가 비밀리에 극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유혈이나 유혈을 씻어낸 물자국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3) 사체부검에 최 교수측의 변호인과 의료진의 입회를 중앙정보부가 완강히 거부했다.

4) 새벽 1시 30분이라면 중앙정보부의 모든 창문은 안으로 잠겨져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창문을 열고 변기앞부리-->변기꼭대기-->창턱을 거쳐 뛰어내리기까지는 어느 한 가지 동작에서도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초가 걸리게 된다. 그러나 최 교수는 잠그는 장치에 익숙치도 않았을 것이고 작고 뚱뚱한 몸집이며 더구나 조사 과정이므로 허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수사관에 6m 거리를 두고 투신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5) 가족들에 의하면 10. 19. 최 교수가 사망 직후 장송록 수사단장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처음 이를 동안은 범행을 완전 부인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18일)부터는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아늑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투신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 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하실에서 고문, 물을 먹인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얼떨결에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6) 또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죽은 뒤 가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으나 가족들은 그것이 허위조작을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강력히 거절.저항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장례식이 끝나자 태도를 돌변하고 10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유림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최 교수에 대한 죄상을 근거나 증거도 없이 늘어놓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후 깊은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70년대 초반 가혹한 노동조건에 분신으로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유신독재 권력의 고문에 의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70년대의 수탈과 전체적 억압을 상징하고, 또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15년이 넘도록 올바른 사인 규명을 요구하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유신독재의 연장선속에서 5공, 6공이 그대로 한국 현대사회의 암흑을 이루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정권의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최종길 교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의 진상을 완전히 벗겨 독재권력의 본질을 국민앞에 폭로하는 것만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 장준하(58세)

- 1918. 8. 27. 평북 의주에서 기독교목사인 아버지 장석인 어머니 김경문여사의 4남 1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나다.
- 1932. 삭주 대관국교를 졸업,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다.
- 1937. 4. 정주 신안 소학교 교사로 3년간 봉직하다.
- 1940. 4. 일본 동경 일본 신학교에 입학하다.
- 1943. 11. 아버지 김준덕씨와 어머니 노선삼여사 사이의 맏딸 김희숙여사와 결혼하다.
- 1944. 1. 일본군 학도병에 입대, 중국으로 끌려가다. 같은 해 7월 일본군에서 탈출, 중국군에 가담하다.
- 1944. 8.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 분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같은 해 12월 중국중앙군 준위에 임관
- 1945. 1. 중국 중경에서 광복군에 편입, 광복군 대위에 임관되고 『동불』, 『제단』지를 간행하며 광복투쟁에 헌신하다.
- 1945. 8. 중국 서안에서 미 육군 군사교육을 받고 국내 밀파 특수공작원으로 대기 중 해방을 맞다.

- 1945. 8. 18. 독립군으로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였으나, 일본군의 저지로 서안에 다시 돌아가다.
- 1945. 1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분으로 입국, 김구 주석 비서, 비상국민회의 서기 및 민주의원 비서 등을 역임하다.
- 1947. 12. 조선 민족청년단에 참가, 중앙훈련소 교무처장을 역임하다.
- 1949. 1. 도서출판 '한길사'를 설립하다. 같은 해 2월 한국신학대학에 편입, 같은 해 6월에 졸업하다.
- 1952. 3. 대한민국 정부 서기관에 임관, 국민사상연구원 기획, 서무과장, 사무국장을 역임.
- 1952. 9. 월간 『사상』을 창간하다.
- 1953. 4. 『사상계』사를 설립, 월간 『사상계』지를 발행하여 16년간 자유·민주·반독재 투쟁에 헌신
- 1960. 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 피임, 홍보분과위원장을 역임하다.
- 1960. 10. 문교부 대학교육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되다.
- 1961. 1. 대한민국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을 역임하다.
- 1962. 8. 필리핀 막사이사이 재단에서 1962년도 막사이사이 상 언론문학부문 상을 수상, 그 상금으로 독립문화상을 창설하다.
- 1964. 언론자유수호 투쟁위원회에 참가, 언론윤리법 반대투쟁에 나서다.
- 1965. 조국수호협의회에 참가, 한일조약 반대투쟁에 가담하다.
- 1966. 9. 한미 밀수규탄 연설 중 이른바 '밀수왕초' 사건으로 1개월간 투옥되다.
- 1967. 3. 4자회담을 주선, 야당 통합을 추진하여 신민당에 입당하다.
- 1967. 4. 대통령 선거운동 중 국가원수 모독죄로 3개월간 투옥되다.
- 1967. 6. 옥중 출마로 서울 동대문 을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다.
- 1968. 이스라엘 등지를 시찰하다.
- 1970.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다.
- 1970. 2. 새로운 민족세력의 규합을 위해 신당운동을 추진하다.
- 1971. 출판사 '사상사'를 설립, 자서전 <돌베개>를 출판하다. 민족 문제에 대한 전망을 안고 민족학교 운동에 참여하다.
- 1972.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참가하다.
- 1972. 7. 7.4 성명의 정신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 평화통일에 헌신하다.
- 1973. 2. 민주통일당 창당에 참여, 최고위원에 피임되다.
- 1973. 12.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 1974. 1.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 위반으로 구속되다.
- 1974. 4.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다.
- 1975. 3. 개헌 민주운동 노선의 단일화 촉구를 위하여 같은 해 4월 민주통일당을 탈당하다.
- 1975. 8. 17.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3리 약사봉에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암살당하다.
- 1975. 8. 21.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다.

다음은 「씨울의 소리」 1972년 9월호에 실린 장준하 선생의 글 '민족주의자의 길'의 일부이다.

민족주의자의 길

1. 민족주의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한 인간이 민족적 양심에 따라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 고달픔과 보람을 민족의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리라. 민족적인 삶이 험벗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있을 때 민족적인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눈물과 노력은 모두 이런 민족적인 간난을 극복하려는 데 바쳐진다. 하물며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존재조차 없어지려 할 어두운 시절에는, 민족이 외세의 침략에 눌리어 그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려는 암울한 시절에는, 민족주의자는 자기의 생명조차 민족적인 삶을 되찾는 싸움 속에서 불태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의 생명, 민족의 존재가 이미 없어져 버릴 때는 민족의 한 사람인 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명과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생명과 존재와는 따로 있는 자기, 민족의 생명이 끊어진 뒤에도 살아 있는 자기, 민족이 눌리고 험벗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 자기이며, 그렇기에 자기의 생명을 실현하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의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참으로 인간적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살아간 길의 갈림점이었다.

애국자의 길과 패국노의 길, 민족적 사랑의 길과 배신의 길이 갈리는 길목인 것이다. 그렇기에 비민족·반민족적인 길에 빠져 버리거나 스스로 택하는 자의 모든 '개인적인' '인간적인' 번뇌는 아무리 그것이 절실하고 불가피하고 자기대로 꾸밈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인미 진실로 '인간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 또 그의 본질은 자기를 성장시켜 가고 실현해 가는 것이지 노예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은 것이다. 저 길바닥에 던져진 한 개의 돌맹이조차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돌임을 지켜갈 때 그는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거니와 설사 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때는 하나의 돌은 아닌 것이다.

하물며 노예의 부귀와 영화와, 참으로 인간적인 영광과는 정반대의 길이며, 오히려 노예 가운데서도 이를 벗어 나려는 싸움이야말로 고귀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족적인 삶의 길이 험난했던 민족의 경우에는 살아가는 일조차 이렇게 험난했다. 말 그대로, 말은 쉽지만 행동은 힘들었고 그랬기에 구슬처럼 맑게 살아간 젊은 시인 조차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써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윤동주)라고 옥중에서 조차 절규하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의 지난 날, 더욱 가까이 최근에는 정말 험난의 연속이었다. 세계의 시공창이 이리로 흘러들어왔고, 세계의 모순, 세계사의 범죄가 이땅을 무대로 일어났다. 산높고 물맑은 강토에 살던 착한 우리 백성들은 홍수처럼, 악마의 불길처럼 밀려드는 이 세계사의 시공창 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사의 악 중의 악인 제국주의가, 악마 중의 악마인 군국주의가 그 가장 표독한 이빨을 우리민족에 들이댔던 것이다.

누르고 뺏고 마침내 말도 빼앗고 성조차 갈려고 했다. 까닭없는 싸움터로 내몰아 앞세워 죽이고 마지막 땀방울까지 빼앗아 갔고 인류의 족보위에 한 민족의 존재조차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하건만 표독한 이빨 앞에서도 끈질긴 항쟁이 있었다. 비록 총칼 든 전투, 이롭나 의사, 열사가 아니더라도 들판에서 공장에서 낫선 이국땅에서 끊임없이 싸웠다. 이 싸우는 민중에게는 바로 민족적인 삶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었고 국토를 빼앗기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광복은 생활의 터전과 자기의 인간적인 삶을 되찾는 길이었다.

이와는 달리 애국이 자기의 삶과 일치하지 않고 지식과 논리가 삶의 터전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던 일부 지식인 지도층에서는 민족에 대한 배반도 일어났다.

하지만 항쟁의 길이 고달프고 외로운 듯했지만 그 실은 온 민중과 함께 있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 승리의 영광은 더욱 보람찬 것이었다.

2. 장구한 싸움 끝에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이 왔다. 빼앗던 자가 망하고 억누르던 자가 쫓겨가고 포악한 침략전쟁이 채망하여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찾은 이 해방의 순간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민족 해방의 환희, 그렇게도 그리던 기쁨, 이 기쁨을 기다리며 참고 견딘 어두운 고통, 이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그리던 희망, 이 기쁨과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설렘, 이 벅찬 설렘을 무엇에다 비길 수 있으랴.

이 벅찬 설렘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알차게 영글어 갔다면 이에 비길 행복이 어디 있으랴만 세계사의 흐름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 주지 않았다. 압제자 일본 군국주의를 무장해제하기 위해 남북한에 나누어 진주한 외국군은 군사적 진주와 점령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 진주와 점령으로 굳혀 갔다. 세계사의 새로운 모순, 동서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범죄가 우리의 강토, 우리 민족의 생명 위에서 새로운 운명을 장난질했다.

게다가 세계사의 이와 같은 새로운 모순이 이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를 권력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 일부 신생 권력층은 안에서, 밖에서 강요한 양분체제에 대응하였다.

통분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민족은 양분되었고, 통일을 갈망한 민중의 염원은 현실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내외가 상용한 분단체제에 묶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통한 냉전체제에 의한 민족의 분단은 기억하기도 참혹한 열전으로까지 터지고 말았다. 세계의 갈등이 그 가장 참혹한 열전으로까지 터지고 말았다.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그토록 불구대천의 원수로 갈라진 무슨 주의가 있었고, 그 주의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두 동강 내어 살기를 원했던가? 그뿐인가, 역사의 동인 전쟁, 그 가장 더러운 동족상잔을 우리가 청부맡아 했더니 오천년 민족사 앞에 아니 인류의 역사 앞에 무슨 낯을 들 수 있으랴.

회상하기도 끔찍하고 몹서리치게 싫지만 다시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 앞서 평화를 확보한 자보다 이긴 승자는 없다. 하물며 동족과 형제끼리의 싸움에 평화보다 더 영광스러운 승리는 없다.

어떻든 우리 민족은 금세기 가장 더러운 세계사의 범죄를 청부받았다.
전후 냉전체제에 의한 남북 분단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자기부정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 이 분단에 내용한 국내세력의 움직임이 어떠했든 그 기본적 계기는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분단된 민족은 역사의 실천 단위로서는 적어도 하나의 주체적 자기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로 나누어진 그 한쪽은 어느 쪽도 하나의 주체적 단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강변은 분단의 합리화를 위한 거짓 명분일 뿐이다.
어떻든 이 분단체제 그 세계적 주범인 양극 냉전체제도 긴장완화니 해방이니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공의 대결과 대립의 완화, 소련과 중공의 동맹과 대립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변 정세를 바꾸어 놓았다.
적어도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총칼을 앞세운 대결은 의미를 잃었고 오히려 대국의 공존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보이게끔 되었다.

이와 같은 양분 무력대결의 근본 조건이 바뀌어져 가는 상황 아래 우리 민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세에 의한 자기 분열을 강요했던 자기부정의 조건이 스스로 변화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부정을 고집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 임기운(59세)

- 1922. 12. 27. 평남 용강군 오신면 석정리에서 부친 임찬하씨의 4남으로 출생.
- 1951. 중앙신학교 신학과 졸업.
- 1961. 중앙신학교 사회사업과 졸업.
- 1956.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 안수.
- 1965 - 66. 부산기독교 연합회 총무.
- 1971 - 72. 부산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 1979 - 80. 부산신학교 운영이사장.
- 1979 - 80.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부산지방 감리사.
- 1980. 7. 19.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속칭 삼일공사)에 연행됨.
- 7. 21. 부산 통합병원으로 옮김.
- 7. 26. 순교.

「연행동기」

임기운 목사는 암울한 유신치하인 1975년 2월 16일 침례교와 성결교 등까지 포함하여 범교단적으로 40 - 50명의 목회자가 조직한 '사회정의구현 부산기독교인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함석헌 선생, 서남동 목사, 문동환 목사 등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임기운 목사의 친지인 김광일 변호사는 5.17적후 김대중 사건 및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차로 많은 인사를 연행, 조사, 구속하였으나 그후 2차적으로 그동안 요시찰 인물로 찍혀있던 인사들에 대하여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한 조사 겸 반체제 운동 예방을 위한 일종의 정신교육, 순화교육 차원에서 민주인사들을 연행하였는데, 이때 임기운 목사도 연행된 것이다.

또한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에 대한 설교를 하자, 바로 며칠 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송된 적이 있고, 설교내용으로 담당 형사가 찾아와 전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임기운 목사는 "나는 정치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임 목사의 연행은 이러한 설교 말씀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재조치였으리라고 판단되어진다.

「사망경위」

임기운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 사령부 부산분실 참고인으로 불려간 뒤 3일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6일 순교하였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목사님에게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보안사 측에서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80-150으로 체구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혈압으로 인한 이상도 없었다. 게다가 미망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센치 가량 찢어져 있고 그 곳에 피가 흘러 말라 붙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통칭 삼일공사라 불리우는 보안사에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그 곳 지하실에서 20대 청년들에 의해 폭행이 흔히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 임기운 목사는 보안사 내에서의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운명하였거나 설혹 육체적 고통은 당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포분위기에서의 정신적 고문으로 운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지들도 고문, 폭행 여부는 당시의 보안대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자연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미망인 최광명씨의 글이다.

드리는 글

고 임기운 목사님께서 순교하신지도 어언 햇수로 9년, 만 8년이 되갑니다. 광주의거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빚어진 갑작스런 일들을 다시 회고해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고도 원통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잊혀져 가려는 그날들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사 부산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통지서류를 받은 목사님께서 1980년 7월 19일(토) 아침 6시경 집을 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을 초대할 계획도 있고해서 꼭 돌아오실 줄 믿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주일) 주보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설마하니 주일아침에는 일찍 돌아오실 줄만 믿었던 목사님께서 오전 10시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10시 조금 지나서야 그리던 목사님의 힘 없으신 목소리가 전화통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언제오시는 것입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보내 줄것 같다하시며 서둘러 목사님 한 분을 단에 세우라 하시면서 잘 있으니 여기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 없으신 그 목소리가 살아 생전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월요일) 12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이 되자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모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가 임기운 목사님택 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냐 물으니 정식(장남, 한번 들어갔던 곳)이와 함께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정식이와 차를 잡아 타고 달려간 곳이 국군보안사 부산분실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선 저는 마음이 떨리기시작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직원 한명이 말하기를 본래 목사님께서 혈압이 높으셨냐고 질문을 하기에 혈압은 정상이라 말하고 당신들은 목사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계신 곳을 어서 빨리 안내하라고 독촉하여 옆 건물인 통합병원으로 인도 받았습니다. 병원문을 들어서니 수술방 유리문을 통해 목사님의 누워계신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순환기절제 수술을 하시고 산소호흡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반경 부산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으시다가 5일만인 26일 오후 10시 43분 운명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임종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상을 밝혀내려 애쓰시는 교단의 목회자님과 여러 신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임기운 목사님의 처 최광명 올림

■ 우종원(28세)

- 1962. 5. 5. 경북 의성 출생.

- 1981. 대구 달성고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입학.
- 1983. 11. 학의 유인물 배포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1984. 4. 특사로 석방.
- 1985. 10. 11. 수배중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마석 모란공원에 가묘.

1. 사건경위

가족들과 그를 아는 친구들에 의하면 그는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 나가시는 홀어머니의 막내였음에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대학생활 중 이 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자기 성찰의 와중에도 항상 주위의 친구들을 다정다감하게 위해줄 줄 알았고, 때로는 기지에 찬 유모어로 자주 주위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었다고 한다.

수배에서 의문의 죽음까지

- 1985년 8월 중순경 : 예비군 교육 통지서를 받고 대구집에 내려간 후 자신이 수배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
기까지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음.
- 8월 24일: 자신의 수배 소식을 들음
- 8월 26일: 가출
- 8월 27일: 소속 불명의 형사 2명이 집에 찾아와서 우종원을 찾았으나 부재 중이어서 되돌아감.
- 9월 27일: 중앙일보 11면에 삼민투 관련 용의자 수배자 명단에 우종원군의 이름이 기재됨
- 10월 7일: 어머니가 상경하여 학과 사무실을 통해 우종원군의 소식을 물었으나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귀가
함.
- 10월 12일: 오전중에 대구 시경 소속 형사 1명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만남. 이때 "종원은 참 아까운 학생이
다. 삼민투에 가담하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신세 망쳤다. 빨리 자수시켜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함. 이날 오후
6시경 본적지 (고향)에 거주하는 백부로부터 우종원군의 사망소식을 접함. 즉 고 우종원군이 1985년 10월 11일 23시
경 경부선 하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충북 영동 - 황간 역 사이, 황간역에서 4Km쯤 되는 곳에서 투신 자살했으며 시
체는 다음 날인 12일 아침 (정확한 시간 미상)철도 선로반원 사람들 (성명불상)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백부에게는 황간지에서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때부터 우종원군의 어머니는 실신상태가 됨.
- 10월 13일: 새벽 1시경 형님이 황간에 도착, 시신확인

시신의 상태

- (1)당시 시신은 전날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매우 젖은 상태였고, 하행선 철로에서 3m 떨어진 콩밭의 고랑에 횡
으로 누운 상태였고 비닐과 거적으로 싸여 있었다고 함.
- (2)옷차림은 밤색 잠바, 바둑무늬 남방, 밤색 플렌 바지 및 헤진 양말을 신고 있었고 내의는 상·하의 모두 새 것
이었다 함. 운동화는 1짝만 신고 있었고 나머지 1짝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다 함.
- (3)나중에 염을 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본 시신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
코와 귀에서 출혈의 흔적이 있었고 오른팔은 골절된 듯 굽혀진 채로 굳어 있었다. 가슴과 목 바로 밑의 두 군데는
커다란 멍자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흙물이 묻은 줄 알고 닦아 내려했으나 지워지지 않자 멍든 것임을 확인함. 또
복부가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띠고 있었다 함
- (4)10월 13일 자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소재 영창의원(의사 조영호)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 상에는 직접
사인을 "두개골 복합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형님의 기억으로는 두부에 외상은 없었다고
함.

소지품

황간지에서 형님 도착 전에 주머니에서 꺼낸 소지품으로는 자살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유서내용

을 적은 쪽지와 수원발 동대구착의 특급기차표가 있었다 함.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없었다고 함.
후에 형님이 물에 젖은 술담배 (10개입) 및 성냥을 찾아냄.

유서는 독서카드용의 종이 2장에 쓰여 있는 것으로 제 1면에는 "수무상형 병무상세 오행무상세"이라고 한자로 쓴
어귀가 적혀 있었으며 매우 서투른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진 것 같은(내용 미확인) - 고 우종원군의 필체인 것 같다
고는 하나 아라비아 숫자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함. 아라비아 숫자는 타인이 썼을 경우 무학자의 필체에 가깝고 동
일인의 필체이라고 해도 비정상적 조건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됨- 글이 있었음. . 기타 제 1면의 나머지 글씨는 황
간지에서 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여 나온 성명, 본적, 주소를 쓴 것이라 함.

유서의 제 2면에는 오직 어머니, 형, 누나, 숙부님, 00(<주>사촌동생, 현서울대 재학중) 죄송합니다, 라고만 쓰여있
다. (필체는 형님 의견으로 고 우종원군의 필체일 것 같다고 함)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기차표는 그 후 열차역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하여 형님이 무심결에 주었다고 함.
고 우종원군의 사망 시간을 10월 11일 23시경으로 추정된 것도 위의 기차표 시간을 따져볼 때 사고 지점을 지나는
시각이 23시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지서 황간역에서는 판단한 것 같음.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시각도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추정됨.

2. 우종원군의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

이상이 고 우종원군의 죽음을 둘러싼 현재까지 알려진 전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들이 남
아 있습니다.

- 1) 어머니와 형님은 고 우종원군의 자살 그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미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고 우종원
군에게 또다시 감옥에 간다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결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또 정말로 열차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외로 의상이 없는 편이라는 점.
- 2) 자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인 유서에서 그의 신원을 밝혀주는 유일한 단서인 주민등록번호의 아라
비아 숫자 필체가 고 우종원군의 여타 유서상의 그것에 비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 3) 사망 추정시간을 결정하였던 유일한 근거인 기차표 역시 현재 유실된 상태이고 또 시신을 사망 후부터 형이
확인할 때까지 상당시간 (24시간 이상) 동안 폭우 속에 방치된 후에 이루어진 사망진단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신
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 4) 만일 고 우종원군이 정말로 자살하였다면 왜 단순 변사사건에 불과한 이 일에 대구 시경과 안기부가 그토록
민감하게 개입하였는가 하는 이 점은 고 우종원군의 화장이 끝난 며칠 후인 지난 10월 17일 고인의 학과 친구들이
대구 집에 조문을 갔을 때 형사들이 집 앞에서 출입자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들여보냈다는 사실에서 보아도 더욱 이
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

3. 자료 (우종원군이 83년 구치소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어머님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는지 궁금하군요.

어머님과 형, 누나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저는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안정되어 불편한 줄 모르고 잘 지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과 가족, 친지들에 대해 저지른 저의 잘못을 어떻게 빌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제 몸 잘 보살피고 차분히 책이나 보는 것 외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더 정확하게 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가끔 경찰서에서 우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제 자신은 약한 존재가 결코 아니고 또한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와 어머니, 형, 누나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부모, 형제간이기에 많은 괴로움을 간
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형의 결혼을 계기로 우리 집에 많은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아울러 그 자리에 함께 못한
아쉬움을 전합니다.

저한테 돈이 충분히 있으니 2월 10일 정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설,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오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머님이 자주 오시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복, 속옷, 양말 모두 잘
빨아 입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편지할게요.

1. 17 종원 드림

어머님, 형, 누나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신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공부하도록 보살피 주신 어머니와 형, 누나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금할 길 없으며 입이 있어도 어떤 말을 해야할지, 손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염치가 없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왔다갔다 하시는 어머님께 죄송스런 마음을 아무리 마음 속에 간직한다 한들 여기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편안히 잘 지낸다고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모쪼록 지금 이순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님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못한 자식을 염려하시지 마시고 형, 누나들이 모두 화목한 생활을 해주었으면 저는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친구 부모님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선임은 돈을 많이 주고 살 것 없이 국선 변호인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동안 책이나 열심히 읽고 앞으로 살아 갈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를 해서 어머님을 복되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하에서 공부하는 처지이고 누구보다 형, 누나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 울어도 보고 잠을 못이룬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서 그냥 죽은 듯이 공부하고 일인의 영예를 위해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도 지금은 별로 위안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님은 1월 15일 경에 오시고 누나들도 연말연시에는 교통편이 불편하니 오지 말고 3월초 첫 공판할 때나 오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형, 누나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형이나 누나로부터는 욕을 들을 만하다고 인정합니다. 동생 공부시키느라 고생해가며 남들처럼 여유있게 생활하지도 못한 채 나에게 쏟아준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어머님 건강이나 나를 대신해서 내 몫까지 효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혼자 조용히 책이나 읽고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책목록: 책은 보통 평론집은 3일에 한 권 소설은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음
 소설: 토지 (박경리작)를 다음에 어머니 오실 때 보내주고 자세한 것은 국회나 약혼녀가 오면 전달하도록 합니다.
 특히 숙부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집에서 편지할 때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곁봉에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다. 편지는 검열이 됩니다.
 그럼 이만 쓰겠으니 어머니 부디 몸조심하시고 연락오는 곳이 있으면 안부전해 주세요.

12. 15 종원

■ 김성수(19세)

1968. 4. 15. 출생.
 1986. 2. 강릉고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
 총학생회 연극부에 가입하여 활동.
 1986. 6. 18. 행방불명.
 1986. 6. 21. 부산송도 앞바다속에 시멘트덩이를 매단 채 죽어있는 것을 잠수부가 발견함.

사건경위

▲1986년 6월 18일(수) 아침 9:30 - 10:00 사이에 전라도 말씨의 사람이 "서울대생"을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고, 파자마에서 교련복으로 갈아입고 급히 외출.
 11시에 교련 시험이 있었고 시험공부중이었다고 함.

학생수첩,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두고 나감. 누나에 의하면 약 5,000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함.

▲6월 20일(금) 아버지 상경, 누나와 만나 고속버스 터미널 파출소에 가출 신고.

▲6월 21일(토) 6시경 부산 송도 앞바다(매립지) 방파제 앞 10m, 수심 17m 지점에서 세 개의 각기 다른 크기(4kg 짜리 1개와 작은 것 2개)의 시멘트 덩이가 각각 다른 종류의 끈으로 정교하게 허리띠에 매어 있는 채로 죽어 있는 김성수 군을 스쿠버 다이버 최영봉(31세)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6월 22일 오전에 사체 인양.

▲6월 23일(월) 부산시 서부경찰서 부검담당 의사 손태동씨에 의해 사체 부검 실시, 참관인으로 장병호씨(기자)참석. 부검결과 폐에 플랑크톤이 들어 있다는 점등으로 익사로 판명, 사망 추정시간(20일) 밤 11시에서 (21일) 새벽 2시, 참관인에 따르면: 두피하 20cc출혈과 세로 5cm, 상층 가로 3cm, 하층 가로 1cm 일직선 상처와 2~3기 굽은 위장에 독성이 없으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황색 액체가 들어 있었으며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6월 23일 관악서에서 "김군과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자취방으로 전화가 오,

아버지가 떠난 후 또 전화가 와서 김군이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통보.

이날 오전 10시에 강릉의 아버지가 사체 확인 오후 8시에 담당검사와 경사가 "자살인 것 같으니 빨리 화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아버지 승낙. 화장 실시.

▲6월 26일: "성적 불량 비판 자살"로 보도 아버지가 서울 시경 강력계에 재수사 요청.

▲7월 10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

▲7월 11일: 부산일보에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익사에 의한 자살로 단정한다"는 결말의 보도가 게재됨.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의문점

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사 결과는 김군의 죽음을 익사에 의한 죽음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그것의 경과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과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경찰 당국의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다.

1) 사건 자체의 경과에 따른 의문점 - 자살로 단정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 사건 당일까지의 김군의 생활에서 자살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김군은 사건 당일까지도 기말고사를 대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가출일인 18일에는 당일 오전 11시에 치러질 교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원만한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와 다른 가정에서의 생활이 위 사실을 더욱 잘 입증한다.

㉡ 사건의 발단이 김군의 자취방으로 18일 오전 10시경에 '서울대생'을 찾는 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화를 받고 김군은 소식이 두절되고 실종이 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이 의문의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정체(파악)에서 비롯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 김군의 시체가 발견된 부산 송도 앞바다는 김군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초행 일뿐더러 김군이 당시 소지했던 용돈(5000원 내외)은 부산까지 도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보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된 경위에 많은 의문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또한 상당한 정도의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 사체 인양 과정을 목격했던 백길영(바다횃집 '대구집'주인)씨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이 전혀 없을뿐더러 해안으로부터 10 m가량 떨어진 수심이 17m 나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자살 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은 매립지를 끼고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높이 3미터 정도의 방파제로 막혀있고 그로부터 바닷물까지는 5-7미터 정도의 수초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김군이 무거운 시멘트 덩이를 몸에 매단 채 사망 추정 시간인 밤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위와 같은 현장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사체 인양자인 스쿠버 다이버 최영봉(31세)씨에 따르면 김군의 사체는 수초가 끝나는 12미터 정도의 바닷속에서 1미터 정도 뜬채로 발견되었고 안경이 깨어져 있었고, 상하의와 신발도 입혀진 채였으며, 신체 상태 또한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체는 시멘트 덩이에 매달린 채로 마치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깊게 느꼈다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살자들이 일반적으로 최후의 순간에 직면하는 고통의 몸부림을 설명할 수 없다. 즉 김군의 경우 전혀 의상이 없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 사체부검시 참관자인 부산일보 장병호 기자에 따르면 외상은 전혀 없었으나 두피절개 결과 두피하 출혈 20cc의 상처 - 세로 5센티미터, 가로 상부 3 cm, 가로하부 1cm의 일직선 쉐기모양-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외부 충

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처의 부위와 모양으로 볼 때 정교한 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김군의 죽음이 단순한 익사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죽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㉞ 김군의 사체 부검이 유족 부재시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원칙상 보호자 입회하에 부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은 보호자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인 6월 23일 하오에 이미 실시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의 이해성과 더불어 사인에 대한 또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㉟ 김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살자들이 남기는 유서와 같은 기록도 없으며 특별한 심적 갈등에 대한 표시 또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사건경과 및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 및 정보기관의 태도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

- 공권력 개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㉑ 부산 경찰이 사망자의 유류품에서 사진 인화권을 찾아 그것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치안본부에 조회한 뒤 김군의 아버지를 통해 직접 신원을 확인한 것은 23일 오후 10시-11시경이었다. 그런데 벌써 23일 오전 10시경 강릉 어머니의 직장으로 정보기관으로부터 전화가 2차례씩 걸려왔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직접 김군의 집을 찾아와서 '김군이 학업에 소홀하다'는 등의 정보를 할머니에게 유도 심문해 얻어 가려 했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 어떻게 정보 기관 등에서 김군의 신원을 부모의 공식적인 확인 이전에 알 수 있었는가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질문 내용에서 단순한 실종자 신원확인 차원을 떠나 김군의 집안 사정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유도성 질문을 많이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㉒ 김군의 신원이 확인된 후 6월 24일 오전 중에 경찰이 김군의 고교 3년 담임교사를 찾아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성수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할머니 자신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이것은 애초부터 '자살'이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경찰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7월 10일에 종결된 수사발표는 6월 23-24일 사건 초기에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㉓ 김군의 가족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그 일례로 전화의 상태가 사건을 전후로하여 현저히 다르고 -전화를 받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음- 전신전화국으로부터의 이유없는 전화번호 확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외출시 미행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 신호수(24세)

1963. 8. 8.	전남 여수에서 출생.
1980. 2.	성동중 졸업.
1983. 8.	검정고시 합격
1985. 6.	방위 근무.
1986. 6. 11.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에서 근무 중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 연행 후 행방불명.
6. 19.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

사건 경위

신호수는 1986년 6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 충전소에 파견되어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해 연행되었다.

목격자 오욱현씨(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 LPG충전소 근무)의 말에 따르면, 3명의 형사가 무전기와 안테나가 부착된 회색빛 포니II 승용차에서 내려서 "신호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신호수가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함께 소파에 앉아 약 15분간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걸봉에 "증거물"이라고 쓰인 봉투를 꺼내더니 뒷부분을 찢고, 그안에 든 유인물을 꺼내어 신호수에게 "이게 너희집에 있던게 맞지?" 하고 묻자 신호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중의 한사람이 "이봐! 거짓말하지마!"하며 묻는말에 수긍하라고 다그쳤다. 이말에 신호수가 반발을 하자, 한사람이 약도를 꺼내어 가지고 "너 여기 살았지? 증거물이 나왔으니 순순히 인정해"하면서 재차 다그치며 신호수의 혀대를 풀고, 주머니 안에 든 소지품을 확인한 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승용차 뒷자석 좌측에 앉히고, 잠시 후 출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해서 서울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이후 신호수씨는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인 19일 10시경 강릉군동 3명의 방위병에 의해 고향집으로부터 불과 4km 거리인 전남 여천군 대미산 중턱의 한 동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체 발견지점인 굴바위는 여수시로부터 12km 떨어진 대미산 중턱으로 이곳은 도로에서 70°의 급경사로 100m가량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이 신씨의 연고지이긴 하지만 5살 때 상경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악산이다. 신호수씨는 흰색 면양말에 팬티만 걸친 상태로, 입고 있던 바지를 동굴 바위틈에 고정시켜 목을 맨 모습이었고, 팔꿈치위의 양팔은 허대로 감겨 있었으며, 소지품은 동굴내에서 불태워지고 일부만 남아 있었다.

당시 서부경찰서는 신호수씨가 방위군무할 때 장관 밑에 모아둔 복한의 뼈라(당시 군부대에서는 뼈라를 많이 모은 병사에게 포상휴가를 보내주었는데 신씨는 이를 의식, 뼈라를 대거 수집하여 장관밑에 보관하다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제대, 나중에 이방에 살게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함)를 문제삼아 대간첩작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장홍공작"이라고 명명하고 신씨를 연행한 것이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사건 당시 여수경찰서는 가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형사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다. 경찰은 1986년 6월 21일 발견 이틀만에 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6월 27일에야 가족에게 통보했다.

한편 가족은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오늘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문사항

(1) 신호수씨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신호수씨는 평소 명랑 쾌활하고 의지가 강하며, 어려운 가사를 고려하여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고 고학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할 만큼 효심이 깊었다고 한다. 성실근면한 신호수씨는 독재체제하에 신음하는 사회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각국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관련된 서적과 유인물을 많이 읽었으며, 가끔 친구들과 같이 집에 와서 토론하곤 했다. 그리고 5·3인천사태 직후 경찰이 여수 집으로 찾아와 신호수씨의 신원과 행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신호수씨의 연행이 5·3인천사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으며, 5·3인천사태 이후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었고 당시 정보기관, 경찰의 수사는 가혹해 졌다.

더구나 경찰이 "장홍공작"이라고 명명을 붙일 정도로 가치있는 사건의 혐의자를 연행 3시간만에 풀어주고 더구나 서울역까지 배웅을 하고 차비까지 주었다는 서부서 담당형사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2) 신호수씨는 서울시경 대공수사반을 자처한 세 사람에게 불법 연행된 뒤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에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은 1986년 6월 19일 사체가 발견되자 이를 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1986년 6월 21일 재빨리 가매장 하였으며, 1986년 6월 27일에야 뒤늦게 가족에게 통보한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한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 더욱이 변사체를 확인한 박산수씨(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도실부락 새마을 지도자)는 "사체를 살펴보니 백색 면양말을 신었는데 양쪽 발목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목에는 잉크색의 멍이 들어 있었다"고 얘기 했으며 덧붙여 "느낌에 자살한 시체 같지는 않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체의 상태가 타살흔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4) 또한 최초로 사체를 발견한 방위병의 말에 의하면, 사체 발견시 목부분이 입고 있던 바지로 감겨져 있었고, 양손이 모아진 상태이고, 가슴부분은 양팔을 휘감아 등부분과 함께 허리띠로 감겨 있었으며, 팬티차림 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자살 행위라고 판명할 수 없다.

(5) 인천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집 가까이 혐악한 산으로 올라가서 유서 한 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사체발견시 자살 시기를 4-5일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경찰 수사를 받은 직후이고, 경찰에 연행되고 사체로 발견 되기까지 신호수를 보았거나 만난 사람이 직장, 집주변, 친인척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고 하는 바, 결국 수사 과정에서 살해된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고정희(29세)

1960. 12. 4.	전남 광주 출생.
1979. 3.	연세대 전기공학과 입학.
1981.	육군입대.
1986. 1.	연대 전기공학과 졸업후 IBM입사(호주 파견근무)
1987. 3.	퇴사 후 연대 정외과 편입학.

- 1987. 10-12. 김대중후보 당선을 위한 청년.학생 단체인 민에청 중앙본부 기획위원회에서 50여일간 숙식하며 활동.
- 1988. 1월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각 언론기관에 부정선거에 관한 투서 및 미대사관에 투석 계획.
- 1988. 3. 서초 경찰서 대공과에 연행 후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 1988. 5. 13. 의문의 죽음을 당함. 투신자살로 발표됨.

사건경위

1988년 1월 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백악관, 독일대사관 등에 '노태우 부정집권'을 고발하는 투서를 한 고정희(연세대 전기공학과 86년 졸업)는 지난 3월 경찰에 연행되어 서초 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강남 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된 뒤,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에 병원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 병원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당일 10층 정신병동 정문을 통해 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9층으로 내려간 뒤 공사중인 신축공사장 베니어판(구멍)을 뚫고 나가 투신, 2층 구름다리 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언들에 의하면 병실안에서 인권위원회, 대사관 등에 탄원서를 쓰는 등 처참하게 몸부림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의문점

① 변사 현장에 대한 의혹

- ▶ 떨어진 투신현장에 피가 입주위에만 원형으로 고여 있다.
- ▶ 투신했다면 안경이 깨어져 안경알의 파편이 있어야 할텐데 안경테 밖에 없었다.- 처음 본 인부 증언
- ▶ 떨어졌을 때 턱은 상하로 길게 찢어져 있고, 부딪힌 현장에 놓여있던 각목은 사방 3인치 굵기로 방향은 좌우로 놓여 있었다.
- ▶ 투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환자복이 영안실에서 소각되었다.
- ▶ 어떻게 죽든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면, 경찰은 그 현장을 보존하거나 현장사진을 찍는게 보통인데 현장의 피를 지워버리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 ▶ 사건 당시 타워크레인이 작동 중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목격자일 수 있을텐데 일체 언급이 없음.

② 자살동기에 대해

- ▶ 고씨는, 병실 안에서 항상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살과 관련 유서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점과 사고 전날에도 결혼, 수영 배우기 등 퇴원 후의 생활 설계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자살할 이유가 없다.
- ▶ 당시 친구의 면회를 에타게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사고 그 다음 주도 구체적인 약속을 함)
- ▶ 사고 당시 퇴원을 에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고 전날은 의사에게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제발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③ 병원측 주장에 대한 의혹

- ▶ 병원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의혹을 남긴다.
- ▶ 씌머타임이라 매우 밝은 시간이었고 9층 내과병동은 물론 택시 승강장, 영안실 등에 사람이 항상 붐비는 상황인데 목격자가 병원측 관련자(경비 이선철과 10층 수간호원, 그의 2명의 인부)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 ▶ 정신병원이라면 경계가 엄할텐데, 어떻게 고정희씨가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가? 당시 경비가 1층 식당에 식사하러 내려가고 남자조무사가 대신 봐주고 있던 상황(그러나 경비의 진술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함)이었으며 그 사람도 바로 뒤따라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 ▶ 사고 발생 후의 상황에 대해 왜 담당의사들은 말을 못하는가? 사건발생에서 영안실 안치까지의 25분간이 너무 짧고(영안실 기록은 엉뚱하게 7시로 되어 있음) 이 55분간의 공백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음. 이 점이 의혹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 ▶ 사건 당일인 5월 13일은 오전 이후 오픈병동에서 고정희씨를 본 사람이 없으며(점심도 자기 침실에서 먹지 않았음) 폐쇄병동으로 간 것이 분명하나 경찰수사상이나 병원측에서 일체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폐쇄병동은 중환자

나 발작환자를 가둬두는 곳으로 독방에 가둬놓고 밤새도록 구타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조무사중 거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 1명이 고정희씨 사고 후 보이지 않는다고 함.)

▶ 영안실에 36일 있는동안 3-4일 간격으로 고정희씨 시신만 혼자 남겨 했다는 점.(영안실에 사무실 정보과 형사가 자주 드나들)

④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 현승민의 말에 의하면 노왕구의사가 '고정희씨가 정치 때문에 죽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함. 또한 사고당시 10층 수간호원이 간호대에 있었으며 10층 경비 2명중 키작고 뚱뚱한 사람이 사고당일 경비했다고 함(병원측은 1층 경비가 임시근무했다고 함.)

■ 이내창(28세)

- 1962. 서울에서 5남 2녀중 막내로 출생. 중등고등학교 졸업.
- 1983. 군 입대.
- 1985. 군 제대.
- 198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입학.
- 1988. 조소학과 학회장
- 1989. 중앙대학교 안성교정 총학생회장
- 1989. 8. 15. 거문도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

유인타살, 사건의 고의적 은폐 - 새로운 형태의 의문사

[사건경위]

중앙대 안성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내창씨는 열정을 갖고 학생회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여 학우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던 운동가였다. 그는 또한 미술생도로서 민족민주미술 운동에 헌신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2학기 사업점검으로 한창 바쁜 때인 8월 15일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낙도 거문도 앞바다에서 의상에 의한 피하출혈 흔적이 7군데나 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15일, 전민련 주최의 '민족해방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16일에는 총장과 면담약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학우들과의 약속도 단 5분을 넘기지않고 확실히 지키던 그가 갑자기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로 그전날 거문도행을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나중에 안기부 인천분실(세칭 인하공사) 소속 여직원이라고 밝혀진 도연주와 그 남자친구 백승희 등 2인과 동행하여 편도로도 밤새워야 갈수 있는 거리인 거문도까지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일은 다른 의문사의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내창씨는 8월 14일 오전에 학교로 찾아온 도, 백 2인과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안성을 출발해서 다음날 18시경 여수발 거문리행 韓리호에 승선한 일이 확인되기까지의 행적이 미궁에 빠져 있다. 그리고 12시 50분경에 거문리에 도착하고 13시-13시30분경 방파제에 앉은 이씨가 목격되며 15시경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에서 도, 백씨와 함께 음료수를 마신 일이 다방 종업원 최씨에게 목격되고 그런 후 15시 30분경 거문리와 덕촌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에도, 백씨와 함께 타고 덕촌리로 건너왔음이 사공에 의해 목격된다. 그런후 이씨는 약 3시간후인 1시 30분경 상의가 완전히 벗겨져 물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기에 이른다.

이후 19일 부검이 실시되고 부검결과를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익사를, 경찰과 검찰측은 단순익사로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지었고, 대책위와 학생, 교수들은 자살이나 실족은 절대 아니며 타살, 익사를 당했다고 주장, 수사과정의 전면공개와 검찰측의 은폐조작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후 사인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체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다가 전대협장으로 이내창씨의 장례식이 있던 10월 6일 <한겨레신문>에 "이내창씨 최후동행자 안기부직원" 제하위 기사가 실리고 국회에서도 야당위원들에 의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치안본부는 전면재수사, 공개수사를 천명하여

사건이 진척되는 듯이 보였으나 경찰은 이를 어기고 수사를 재개하는 시늉만 하다가 어느 정도 사회적 관심이 수그러들자 <한겨레신문>을 도씨 명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은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이내창씨 사건은 이철규씨까지의 "의문사"가 개연성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죽음의 장소에까지 유인, 타살하고 (정황이나 목격자의 진술, 상처 등으로 보아 자살일 수는 없다) 그 살인행위를 국가권력이 의식적으로 은폐, 조작해준 뚜렷한 사건으로 앞으로의 권력에 의한 의문사의 발생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즉, 이제는 수사과정이나 연행과정에서 전적으로 죽일 목적이 없이 고문 등을 가하는 과정에서 죽이게 되고 그를 사후에 은폐, 축소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을 갖고 대상을 고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사후대책까지도 마련한 속에서 왜곡, 축소시키는 유형의 정치적 목적의 의도적 타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첫번째 경우가 이내창씨의 의문사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의문사항]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한겨레신문> 89년 10월 8일자 신문을 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내창씨 죽음 꼬리무는 의혹

동행자들 알리바이

경찰은 지난 8월 15일 이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뒤 지금까지 직접 면담, 목격자 탐문, 출장수사, 우편조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모두 7백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활동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중앙대 '공동대책위'도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백여명의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과정에서 이씨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주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안기부 직원으로 밝혀진 도아무개(23.여)씨를 비롯해 도씨의 동행자 박아무개(22), 서아무개(22), 또다른 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의 친구인 이아무개(20.여)씨 등 6명이다.

배 탄 시간 진술과 틀러

이 중에서도 특히 도씨와 백씨는 이씨가 숨지기 2시간 전인 8월 15일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이씨와 '같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같은 증언들과 함께 이들의 진술도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과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많아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씨와 백씨는 15일 낮 12시 30분께 거문리에 도착한 뒤 곧바로 동도에 있는 친구 박아무개씨 집에 전화를 걸어 "마중 나오라"고 한 뒤 20분 뒤인 12시 50분께 전화를 받고 마중나온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를 거문리에서 만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와 함께 4명이 거문리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인근 영국군 묘지로 놀러갔다가 오후 5시께 동도의 친구집으로 함께 건너갔다고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씨가 오후 3시께부터 20분 가량 이내창씨와 함께 있었다"는 거문리 삼호다방 여종업원 최희(24)씨의 증언과 거문리-서도간을 운행하는 덕성호 선장 이현우(42)씨의 "이내창씨와 도백씨가 3시 30분께 함께 배를 타고 서도로 갔다"는 증언으로 결정적으로 깨져나간다. 또한 도백씨의 진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백씨의 친구로 마중나간 박씨와 서씨가 거문리에 도착한 시각도 도씨 등의 진술과 달리 1시간 가량 늦은 오후 1시 50분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문리 일대를 운항하는 거문호는 당시 오후 1시에 거문리를 출발해 서도의 선착장 2곳과 서도 인근의 외딴섬 2-3군데를 돌아 오후 1시 35분께 동도에 도착해 10여분 뒤인 1시 50분께 거문리로 되돌아오는 일방코스만으로 운항했고 박.서씨는 동도에서 이 배를 타고 와야 했기 때문이다.

도백씨 연인사이 아닌듯

또한 거문리에서 합류해 4시간 가량 4명이 동행했다는 부분도 4명의 진술 이외에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거문리 선착장에서 15분 거리인 영국군 묘지는 2평 정도의 크기로 2m 높이의 십자가 하나와 돌로 된 묘비 하나만 서 있는 곳으로 일행 4명이 3시간 정도 머물면서 불 만한 것도 없고, 다른 휴식 또는 위락시설이 전혀 없다. 도씨와 백씨는 부천에서 만나 여수로 같이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도씨는 14일 여수에 도착한 시각을 백씨보다 30분 가량 늦추는가 하면 배표를 예약해준 사람과 만나 표를 받은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도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로부터 여수에 고속버스편으로 도착했다"고 진술한 반면 백씨는 "오후 4시 30분께 도착해 5시께 여수시 봉산동 봉산우체국 앞길에서 도씨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거문리행 타고마3호 예매표2장을 받았다"는 것 같은 진술을 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 출발하는 타고마3호를 타지 않고 1시간 늦은 8시께 이씨가 탄 신영페리호로 거문리에 갔다. 당시 신영페리호 배표는 방위병이 회수하게 돼 있었는데, 이 회수표 묶음에는 이씨, 도씨, 백씨의 순서로 표가 모아져 있었다.

이와 함께 도씨와 백씨가 그들의 주장처럼 '연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도씨와 백씨가 15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2박3일 동안 동도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낸 이아무개(여)씨는 "두 사람이 결코 연인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14일 여수에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 각각 방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족익사' 추정 의문점

경찰은 이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서도 유림해수욕장 방갈로 앞으로부터 약 5백m 가량 떨어진 암석지대에서 이씨가 실족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가 실족해 익사한 뒤 조류에 따라 5백m쯤 흘러왔다는 것이다.

잠목숲 헤쳐간 흔적없어

그러나 주민들은 물에 떠밀려 온 시체라면 몸에 상처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암석지대로부터 방가로 앞 바닷가 사이에는 암초 등 바윗돌들이 많고, 당시는 여름이어서 오후 6시께에는 날이 환해 떠밀려 오는 동안 사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체 발견 현장에서 3m 떨어진 곳에 이씨의 허리띠가 놓여 있었던 사실은 조류에 의해 사체가 떠밀려 왔다는 추정을 결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경찰의 '실족추정' 지점인 암석지대로 가려면 *해안을 따라 바윗돌들을 건너뛰거나 타고 넘는 방식, 뒤편 오솔길을 따라 가다가 동백나무 등 잠목숲을 뚫고 들어가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나, 현지탐사 결과 2가지 가능성이 모두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백나무 잠목숲은 1-2m 두께로 딱딱해 헤치고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헤치고 들어갔다면 사체에 굽힌 자국이 많이 남아야 하는데 실제 이씨의 사체에 굽힌 자국은 거의 없었다.

또한 바윗돌을 건너 뛰어가다 살족했을 경우 이 지역의 바위들이 크고 둥근 모습이어서 사체에 난 것과 같은 상처가 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

■ 이철규(25세)

- | | |
|---------------|---|
| 1965. 5. 6. | 전남 장서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부락에서 부 이정진 모 이인규씨의 3형제 중 둘째로 출생. |
| 1982.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입학. 동아리 UNSA(국제연합학생회) 가입. |
| 1984. | 조선대 민주화 자율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 1985. | 반외세 반독재투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 1985. 11. 14.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년형을 선고 받음. |
| 1987. 7. 8. | 6.29조치 이후 가석방. 2학기에 3학년으로 재입학. |
| 1988. | 2학기 「민주조선」 편집위원장. |
| 1989. 4. | 「민주조선」발간과 관련, 국가보안법 반혐의로 수배를 받음. |
| 1989. 5. 3. | 행방불명. |
| 1989. 5. 10. |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수배중 고문의 흔적 역력한 참혹한 변사체로

[사건 경위]

89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 4수원지에서 조선대 「민주조선」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철규(전자공학 4년)열사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철규열사는 교지 「민주조선」에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국보법 위반혐의로 4월 18일 광주.전남지역 공안합수부에 의해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철규열사의 사체는 수원지 관리인인 최왕균씨(52세)에 의해 수원지 상류에서 발견, 하늘을 향한 채 떠 있었다. 최씨에 의하면 "5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어 물가로 내려가보니 사체가 있어 청옥동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체는 입가에 피를 흘린 자국과 온몸에 멍이 많이 들어 있어 구타흔적이 역력했으며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다. 또한 오른쪽 눈은 함몰상태에 있었고 왼쪽눈은 튀어나와 있어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지검은 김각영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만들어 사망 전 이철규 열사를 검문하였던 경찰들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인규명에 착수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월 14일 이철규열사의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여 발표하였고, 검찰은 이와같은 사체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철규열사가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사체의 상태 및 죽음의 정황에 비추어 플랑크톤 검출만으로 실족사라는 검찰의 판단은 대단히 설득력이 없었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재판이 아닌가는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국의 학생 및 재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애국학생 고 이철규고문살인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노태우정권의 퇴진운동을 떠나가게 되었다.

한편 미국무부는 이철규열사의 사체가 발견된지 이틀 후인 89년 5월 12일 이철규열사의 변사사건에 대해 "개탄스럽고 잔학스러운 사건이며 살인범을 체포해 엄벌하기를 기대한다"는 극히 이례적인 논평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변사사건에 모종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혹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철규열사 사건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89년 6월 1일부터 현지에 내려가 활동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전문 지식의 한계와 사인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부검 요청이 검찰측에 의하여 거부됨으로써 많은 의문점만 지적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고서조차 발표하지 않고 6월 27일 활동을 종결하였다.

한편 검찰의 이와 같은 재부검 거부방침에 따라 유족 및 대책위는 칼쉬너 박사를 초청하여 동인이 6월 29일 내한하였으나 검찰이 자체 부검마저 금지 시킴으로써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칼쉬너 박사의 1차부검 당시의 슬라이드 제출요청마저 검찰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검찰이 사인규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사인을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이철규열사의 사인은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철규열사의 사체는 냉동상태로 있다가 6개월후인 89년 11월 4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었다.

[의문사항]

1. 사고사, 자살 주장에 대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1) 도주 후 동일지점에 복귀

이철규열사가 산으로 도주했다면 도주 후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어둠속에서 철조망을 넘어 점퍼가 발견된 지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저지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취수탑 경비초소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했고 도주 후 경찰의 수사력 집중, 매복가능성 등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요소가 많은 지점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도주하는 자라면 신변노출의 위험이 없는 야산을 통해 도주하는 것이 상례이지 위험지역으로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도망자의 도피로는 사전 약속장소 방향이나 위험이 덜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2) 수원지 도강(渡江)

① 점퍼가 발견된 지점에서 만약 도강하려 했다면 현지 조건상 최악의 지점을 선택한 것이다. 폭이 200미터가 넘고 수심이 7미터가 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통해 광주로 진입하고자 했다면 헤엄치는 물소리가 경찰 또는 경비 청원경찰에게 탄로날 것이 자명한데 체아무리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을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설사 도강하려 했다 하더라도 도주자가 옥을 입고 신발, 더욱이 구두를 신고 도강할 사람이 있겠는가, 더욱이 도강후 옷과 신발이 젖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옷과 신발을 물에 젖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옷도 벗지 않고 구두를 신고 도강한다면 도주자의 신분 노출을 자초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3) 실족해서 의사할 경우

실족을 했다면 당연히 점퍼를 입고 있거나 실족사한 부근에서 점퍼가 발견되어야 한다. 이철규열사의 경우 점퍼를 벗어놓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용지를 27조각으로 찢어 놓고 실족했다는 것은 행위의 전후가 모순되는 상식 밖의 일이다. 따라서 옷을 벗어 놓고 실족했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4) 자살을 가정할 경우

평소 의지나 신념이 강한 이철규열사가 도주한 후 자살을 감행할 이유가 없으며 유서 등 자살을 기도한 근거가

없는데, 실족 자살로 의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경찰 발표 및 수사상의 의문점

1) 만약 경찰의 발표대로 도주자를 놓쳤다면 당연히 사건현장은 물론 인근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는 물론 정밀한 수색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지극히 미흡했다. 경찰측은 국회진상조사시 평소 20:00-02:00까지 근무시간임을 밝히고도 사건당일만은 23:30에 일찍 병력을 철수시킨 것은 수사관례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청옥동 파출소 소속 정종석 순경(41), 전기홍 순경(38)등 2명의 경찰이 더 투입되었는데도, 호반 산장에서 이군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무등산장 쪽에서 사건지점을 23:30경 통과한 박효양(23,조선대 졸)에 대해서는 일체의 검문검색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검문검색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 즉 도주자를 놓친 것이 아니고 체포해서 상황이 끝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2) 도주자를 놓치고 난 후 홍성하씨(31)와 이행민씨(46)등 2명의 청원경찰이 수색경찰과 합류했을 때 이군을 검문 검색한 지점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즉 이군이 산으로 도주한 지점 바로 아래 수원지에서 청풍교 아래에서 들리는 "어푸어푸" 소리를 1명은 5-6회, 다른 청원은 2-3회 들었다고 진술하여 경찰과 수색을 재개했는데 자동차 전조등 또는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만약 그러한 소리를 분명 들었다면 20여분 전에 도주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에서 부근 일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도주자가 빠졌을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탐색작업을 했어야 옳지 않은가.

더욱이 허우적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난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낚시하던 김오빈씨(35)와 김현빈씨(36)는 조용한 수원지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청원경찰 2명에게 얘기했고, 잠시 후 정복경찰 1명(정종석순경)과 형사1명이 취수탑 초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해 신분증 확인과정에서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면 청원경찰이 들은 소리는 청원경찰만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라는 말인가.

3) 제 4수원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평소 20:00를 전후해 퇴근하는 것이 상례라고 인근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5.3사건 당일밤 10시가 넘도록 근무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청원경찰이 무슨 이유로 청옥파출소에 어떤 내용을 무슨 방법으로 연락하여 2명의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의문에 싸여있다.

4) 도주자를 놓쳤다면 당연히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 지난 5일에야 북부서 형사제1반 팀장인 김자술경위가 북부서 수사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점은 경찰의 수사지휘체계 상 상식 밖의 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당시의 근무일지, 상황일지 등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5) 경찰측에서는 청풍교 부근 수원지 건너편에서 낚시하던 김오빈씨와 김현빈씨에 대해 사건발행 직후부터 12일까지는 청원경찰이 감시초소로 내려와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사건장소에 낚시꾼이 있었으며, 북부서 김자술 경위(51), 김남태 경장(30), 박재환 순경(37) 등 5명의 경찰관 외에 2명의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있었으며, 이들 낚시꾼에 대한 신원확인 은 청옥동 파출소에서 나온 정종석 순경(41)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6) 경찰은 당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5명이었다고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회진상조사단에게 증언했으나 출동차량인 24인승 미니버스를 의경이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5명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소한 문제까지 자꾸 반복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엇인가 축소하거나 숨기려 든다는 인상을 받고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7) 검문경찰들은 사건 직후 검문과정에서 놓치고 추격하여 되돌아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처음에는 20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추후 국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시 1시간 가까이 박재환 순경이 잠복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문경찰들의 진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시간 여 동안 잠복한 박순경은 물론 관련 경찰들의 행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8) 검문사실의 첫 제보자인 택시기사 이재민씨(35)는 11일 11:30경 전대 의대 영안실 관리실의 인터뷰 장소에서 이철규열사가 도주할 당시 택시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철규열사가 도망가자 운전기사 이씨가 맨앞에서 광주 4과 4684호 영업용 택시를 몰고 쫓아갔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9) 추적경찰 2명이 20여분 후 되돌아와 운전사 이씨에게 "틀렸다" "놓쳐버렸다. 택시 강도가 많으니 밤늦게 이런 곳으로 운행하지 말라"며 순순히 이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문 도중, 신원확인 중 피검문자가 도주해서 놓쳤다면 경찰은 당연히 승차지점, 목적지, 승차시간, 주행중 대화내용 등에 대해 추궁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것은 경찰이 이씨에게 더 이상 물어도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또한 의문을 더해 주고 있다.

3. 경찰의 수사태도의 의문점

1) 5월 10일 제4수원지 관리인 최왕균씨(52)의 사체발견 보고 접수후 검문에 임한 경찰은 당연히 이철규열사의 도주사실과 변사체와의 관련사실을 지회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사 이재민씨가 검문중 청년 1명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이 사실이 보고되고나서야 비로소 검문했던 상황을 밝혔다 것은 이철규열사를 마지막 목격하고 추격했던 경찰에 대한 의심을 더욱 깊게 해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2) 사체가 발견되었다면 그 일대를 수색하고 유류품 또는 흔적을 찾기 위해 집중적인 수색작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들이 지난 12일에야 점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사관행상 상식밖의 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3) 5월 3일 사체 인양 직후 사체에서 현금 3,000원이 발견되었다고 당시 이철규열사 행선지 등 정황으로 보아 3천 원 보다 많은 금액을 소지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된 후 14일에야 사체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당시 북구청 보건소 지방의사 김세현씨(38)가 변사자의 모든 호주머니를 뒤져 주민등록증, 현금, 도장 등을 찾아냈는데 현금 20만원이면 주민등록증 보다 두꺼운 부피임에도 발견치 못했다는 사실은혹시 돈봉투가 다른 곳에서 보관되었다가 사체에서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점퍼, 소지금액은 물론 안경, 수첩, 담배, 가스라이터 등에 대해 최후 목격자나 제보자의 진술과 보도가 먼저 제시되고 난후 수사결과가 곧바로 뒤따라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수사본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4. 부검 소견 및 유류품 발견 발표의 의문점

1) 위 내용물: 5월 11일 전남대 외대 영안실에서 있었던 이철규열사의 부검당시 위에서 발견된 밥알은 사망 2-3시간 전에 이철규열사의 식사 사실을 반증했다. 사건 당일 이철규열사의 행적을 살펴볼 때 17:30경 호남대앞 음식점에서 후배 정우태군(호남대 사학과 3년)과 짜장면을 먹었고 동일 20:40분경 산수동 오거리 소재 '길목' 카페에서 후배인 이회복양, 이경미양과 만나 음료수만을 마신것으로 관련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실종된 22:20이후 점심식사는 6시간 이상 경과해 위 안에 남아있을 수 없었고 더욱이 오후 늦게 식사를 하고 후배 생일축하 식사가 약속된 까닭에 17시 30분 짜장면 식사후 다른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수사 당국에서 추정하는 대로 식사했다고 할지라도 위 안에서 발견된 밥알은 사망일자와 사망시간은 물론 실종후 이철규열사의 행적에 결정적 단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공개 가검물검사 중 위 내용물을 조사하면서 약물에 의한 중독여부를 가리는데 촛점을 맞춘 것은 사망시기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다.

2) 점퍼: 5월 3일 길목 카페에서 만나 동일 22:00경 헤어진 이철규열사의 후배 이회복, 이경미양에 의하면 12일 경차량 의해 발견된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는 사건 당일 이철규열사가 입고 있던 점퍼가 아니고 얇은 천으로 된 속색이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만약 이철규열사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이 점퍼가 12일까지 10일 2.8mm 11일 14.7mm 12일 5.2mm의 강우량(광주 기상대 보고)을 보인 일기에서 가장 습기에 약한 담배나 성냥이 비에 젖지 않고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건 발생 3일째 되는날 발견됨으로써 사체 발견 인접지역을 수색하는데 그토록 소홀히 할 수 있느냐는 점 또한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 정도로 보아 넘기기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솔한 의혹과 의문을 남긴 채 89년 11월 4일 이철규열사의 장례식이 치루어짐으로써 이철규열사의 변사 사건은 관련자의 양심선언 등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영구히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릴 공산이 크게 되었다.

■ 김영환(27세)

- 1965. 2. 15.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
- 1984. 2. 삼척고 졸업.
- 3. 고려대 불문학과 입학.
- 1989.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 한미군사관계, 평화, 군축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연구.
- 1991. 4. 7. 자취방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

김영환씨는 명지대생 강경대열사가 운명한 그 다음날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김영환씨는 4월 25일까지 자취방에 있는 모습을 김주인이 보는 등 생존한 모습이 보였으나, 그후 행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한겨레사회연구소원으로 재직하면서 민족문제, 군축문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정력적인 연구와 논문발표 등의 활동을 벌였고, 죽음 직전 윤석양후원사업회 관계자들을 만나 군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았으며 그후 기무사 요원이 그의 행적을 감시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사인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하고 가족과 동료들에 의해 장례가 치루어졌다.

1. 부검 결과

1) 사망원인

대동맥이 파열되어 다량의 혈액이 누출된 것이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부검결과 심장에서 9-10센티 위에 있는 대동맥이 5센티정도 찢어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고인은 "해리성 동맥유"로 87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인의 동맥이 확대되어 있어 파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망시간

사체 냉동 후(냉동시각 27일 오후4시경) 24시간 이전으로 파악되었다. 즉, 26일 오후 4시 이전인데 고인이 25일 오후 6시에 전화를 하였으므로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6시에 26일 오후 4시사이로 추정된다.

3) 외부충격 가능성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충격이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외부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액 채취결과

완전한 소화상태가 아니다. 불확실하나 음식물 섭취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의문점

1) 커피포트에 끓고 있던 물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6시에서 26일 오후 4시로 추정할 수 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은 27일 오전 9시 20분이었다. 따라서 25일 오후 6시에서 26일 오후 6시 사이에 커피포트 전원을 넣고 물을 끓였다면 커피포트의 물은 27일 오전이면 벌써 증발했어야 했다.

2) TV와 26일 저녁 8시에 켜져있던 형광등

TV(채널9)를 켤 수 있는 시간은 25일 오후 12시 이전이다. 고인이 25일 12시 이전에 TV를 켜놓은채 사망했다면 역시 커피포트가 의혹으로 남는다. 또한 25일 저녁에 켜져있던 불이 26일 오후 8시에 켜져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3) 사체발견 당시 고인의 누운 모습

대부분의 경우 동맥이 5센티 이상 찢어진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격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은 요를 깔고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반듯이 누워 있었다.

4) 위액의 상태와 사망시간

음식물 섭취 후 2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오후 6시에 음식물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8시 전후이다. 이는 25일 오후 8시부터 자동응답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으므로 25일 8시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커피포트, 25일 저녁에는 꺼져 있었으나 26일 오후 8시에 켜져있던 불과 모순된다.

3. 묻혀버릴 한 젊은이의 죽음

고인의 죽음은 분명 많은 의혹만을 남기고 있다. 특히 고인이 양심선언한 군인들과 여러차례 만났었고 그들로부터 4월 16일경에 "군복무 기간 단축투쟁"에 대한 글을 전해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의혹은 증폭된다. 그러나 부검결과 동맥파열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동맥이 평소에도 약했으므로 결국 고인이 동맥파열로 죽은 것으로 공식화될 것이다.

▣ 박창수(34세)

- 1958. 7. 28. 부산에서 출생.
- 1979. 2. 부산 기계공고 졸업.
- 1981. 5.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배관공으로 입사.
- 1990. 7.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당선. 부총연 부의장.
- 1991. 2.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 5. 4.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 5. 6. 의문의 죽음을 당한 변사체로 발견됨. 양산 술발산묘원에 안장

박창수 열사는 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다. 열사는 한여름이면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작업탱크 안에서 얼굴에 허영계 소금꽃이 피고 겨울에는 영하 10도를 넘는 추위 속에서도 추락의 위협으로 옷조차 제대로 껴입지 못하는 참담한 노동생활을 겪으면서 인간다운 노동자의 삶을 고민하게 된다. 그 후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한맺힌 절규가 전국을 뒤흔들던 87년 7월, 마침내 이땅 천만 노동자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된 그는 3년간 노조 회계감사로 재직하며 자본가, 정권과의 고난한 투쟁에서 언제나 든든한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90년, 노조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성공리에 이끌며 93%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뒤 진정한 민주노조의 상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또한 그해 9월에는 부산노동조합총연합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계속되는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공작을 뿌리치고 30만 부산노동자와 1천만 전국노동자의 연대투쟁을 이끄는 지도자로 민주노조 운동의 대오를 강화하기 위해 실천해왔다.

그러던 중 열사는 대우조선의 파업 관계로 긴급 소집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 회의'에 참석했다가 제3자 개입 금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91년 2월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서울구치소에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의 탈퇴를 집요하게 강요받았으며 그러던 가운데 91년 4월 말부터 단식투쟁을 하였고 5월 4일 운동 중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열사는 그 뒤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안기부 요원 홍상태가 한진중공업의 전노협-연대회의 탈퇴공작을 전개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죽인 후 투신 자살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강제부검 이후 당국은 부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박창수 동지의 어머니 아버님은 당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 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한다고 한진중공업 조합원과 약속을 했으며, 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1차 진상규명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패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계속 싸우고 있다.

1. 사건 개요

1) 배경

- 91년 2월 10일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 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 69명을 의정부 경찰서에 강제 연행한후 노조위원장 7명을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2월 11일 구속 시켰다.

박창수 위원장도 이때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5월 1일 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세계노동절 정신계승 및 백골단 해체를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중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은채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며 구치소에서 안양병원에 왔으나 당시의 상태는 머리가 7cm 가량 찢어졌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의식불명의 상태였다.

- 5월 4일 운동시간에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면서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콘크리트벽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후 7cm 가량 찢어진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16바늘 꿰맸.

- 박위원장 동생이 5월 6일 새벽 3시 30분까지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들었는데 4시 45분경 간호원이 깨워서 일어나보니 박위원장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니 위원장이 중환자실 1층 복도밖에 누워있는 시체로 발견.(이 위치가 건물외부로 보면 옥상밀의 바깥인 것으로 보임)

- 시신의 상태는 피를 흘린 자국이 없고 가슴위로 반점 두개가 있었으며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음. 발바닥에 링겔병 조각이 찍혀 발바닥에 소량의 피가 있었다.

- 5월 6일 새벽 5시경 안양병원에서 사망.

2) 사망원인

- 서울 구치소 교도관측의 발인

서울 구치소 내에서 운동시간중에 배구를 하다가 가볍게 머리가 찢겨졌고 치료를 위해 안양병원에 왔는데 5월

6일 새벽 5시경 투신한 상태로 발견 되었다고 교도관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함.

- 5월 6일 오전 뉴스에 발표된 내용

“안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5월6일 새벽 4시부터 4시30분 사이 7층에 올라가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규탄하고 노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투신 사망했다”고 발표함.

- 노동부 장관 노동위 보고.

5월 4일 배구시합을 하다가 머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5월 6일 새벽 1시 투신사망 이라고 보고.

-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원인.

박창수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해서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를 판단한 정권과 자본은 15대 박창수 집행부가 구성 될때 부터 노조파괴 공작을 모색 했음이 분명하다. (안기부 직원 홍상태라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구치소 안에 있을때 온갖 회유협박 및 전노협 대기업 연대회의 탈퇴 조건을 제시함이 분명하다(부산시 남구 대연동 모 카페에서 안기부 조정관이라는 자가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국장 장세균, 조직부장 한재문에게 “전노협 탈퇴와 해고자 복직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함. 또 노조 사무국장 장세균이 노조 직무대행 이정호에게 구속된 박위원장 조기석방을 위해 안기부 직원을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남구 민락동 횡집에서 안기부 직원을 만났을 때 전노협 탈퇴를 제의받음) 여기에 불응한 박창수 위원장을 안양 병원까지 찾아와서 압력을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봄.

2. 의문점

1) 부상경위에 관한 관계당국의 발표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창수 위원장의 부상경위에 대해 당국은 “여러명이 공놀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고 검찰은 1차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했다가 중간 수사발표에서 “재소자 69명과 함께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다가 대열 끝에서 7-8M 달려가서 시멘트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 자해했다고 했다.

2) 왜 자해 했는가 ?

검찰은 힘겨운 구치소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인은 병원에 있을때 부인과 노조간부에게 이 시대의 노동자가 탄압당하고 있는데 구치소에 그냥 있을 수 없어 죽음을 무릎쓰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요지의 발언을 몇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위축감을 느끼는 듯 밖으로 얘기할 때는 배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3) 같은 방의 수감자는 누구인가 ?

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방에는 3명이 있었다. 1명은 인신매매 용의자,1명은 사기용의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고인조차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혀질 꺼려했다.

그는 누구이며,왜 구치소 측은 같이 있던 수감자와 조사단의 면담을 가로 막는가 ?

4) 왜 밥을 먹지 못했는가 ?

고인은 부인에게 안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며칠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고인은 단식농성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 되었다. 고인은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왜 먹지 못했던 것일까?

5) 합의 사항을 깨고 황급히 부검한 이유는 ?

검찰은 유족과 대책위에 양측 합의 하에 부검하기로 해놓고 불과 17시간만에 약속을 어기고 황급하게 시신을 탈취 부검했다. 무슨 말 못할 급한 사정이 있어서 시신을 급하게 처리했는지?

6) 감시 중이던 교도관 한명은 어디에 ?

감시중에 교도관 2명이 동시에 졸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박위원장 사망 시간을 전후하여서는 현장 주위에 1명의 교도관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7) 부검 소견서를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

검찰은 현재 사인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있다. 더구나 5월 6일 06시경 사망현장에서 검사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현장을 찍은 사진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서 아직까지 안주고 있다. 관계 당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8) 시신은 20M 상공에서 추락했다

검찰은 중간발표에서 발목에 심한 골절상이 있다고 해서 투신자살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20M 높이에서 추락해

발이 먼저 땅에 닿았다고 해도 2차 충격으로 머리등에 외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발목외에 뚜렷한 외상이 없고, 죽은 모습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였으며 링게르병 조각이 지름 1.5m 안에 흩어져 있던 점은 7층 옥상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링게르병을 팔에 끼운 채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한다는 점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9) 계속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은 누구인가?

박위원장이 병원에 입원 중일때 신원불명의 사나이의 두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는 구치소의 행정망을 자유자제로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들은 누구인가?

10) 안기부와 연락담당 장세군의 행방은?

5월 10일 장세군씨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위원장의 죽음을 전후하여 장세군씨는 안기부와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왜 장세군씨는 나타나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11) 한진중공업 노조활동에 개입했던 안기부요원은 누구이며, 안기부는 그를 통해 어떤공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점.

- 1991년 4월 25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모까페에서 안기부 노사조정관이라는 (홍상태)인물이 노조 사무국장 장세군 및 조직부장 한재문씨에게 "전노협 탈퇴와 해고자 복직을 바꾸자고"제안을 하였음.

- 1991년 4월말경 장세군씨 주선으로 부산시 남구 민락동 횃집에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정호씨와 장세군씨가 안기부 조정관을 만나고 이자리에서 안기부 조정관은 "박위원장 석방문제는 해고되지 않을 정도의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도 최대한 신경을 써 보겠다면서 주위에서 볼때 노조가 변한 것처럼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노협을 탈퇴하면 안되느냐고 하였음.

3. 검찰 중간 수사발표 내용의 의문점과 문제점

	검찰 발표내용	유가족 및 관계자 증언	의문점과 문제점
자살동기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과 노조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유서도 남기지 않은점, 노조간부에게 "투쟁에 동참못해 미안하다 꼭 살아서 나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삶에 애착을 보인점 등으로 미루어 자살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노조활동에 회의가 들더라도 그것이 자살 동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살에 몰릴만한 어떤 다른 동기가 있었는가?
신원미상 청년의 병실방문 문제	5월6일 04시경 신원미상 20대 청년이 병실에 들어와 박위원장 면회한 후 고인이 앉았다 누웠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등 불안해 했으며 순간적 충동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	5월 6일 04시경 30-40분간 병실에 박위원장 면회를 온 사람은 없었으며 고인의 동생 황인갑씨가 "맥박이 어떠냐"며 병실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 했는데 이부분이 오해를 일으킨것 같다(간호사 홍문숙, 오은숙의 증언)	검찰은 왜 간호사들의 증언을 왜곡해서 발표했는가? 순간적 충동에 의한 자살이라는 추정을 합리화 하고 사건진상을 호도하기 위한 고의적 왜곡은 아니가?
옥상으로 올라간 경위	교도관이 조는 사이에 박위원장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시국사범이라 하여 특별히 감호임무를 맡고 있던 교도관들이 두명씩이나 똑같이 졸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투신시신 의 상태	부검결과 양발이 먼저 땅에 닿아 발목과 척추가 부러지고 장파열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20여미터 높이에서 추락 했는데 어떻게 머리나 신체의 다른 부분이 아닌 양발이 먼저 떨어졌는가? 발목과 발바닥 이외는 특별한 외상은 없음.

강제징집 당해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관련자료 1]

- 국방부 발표 내용

1. 실시 시기(기간) : 1982. 11 - 1984. 11
2. 법적 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56조(학칙기재 사항)
 병역법 제22조9재학생의 징병검사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학적보유자의 변동)
 병역법 개정(법률 제3696 : 83. 12. 31)
 제52조(징병검사 및 입영의 연기)
 병역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511호 : 84. 9. 22)
 제94조(학적 변동자의 처리)
 84이후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병역법 제 19조 (지원), 시행령 94조 (학적변동)에 의거 학원 소요 관련 학사 징계로 81.11 - 83. 11간 입대 조치된 자 447명에 대한 정훈교육대상자로서 82. 9월부터 시작되어 84. 11월 폐지시 까지 보안사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5명이었음.
 입대자와 교육대상자간 차이가 나는 18명은 사안이 경미하여 분류과정에서 제외시킨 인원임.'

[관련자료 2]

- 신동아 기사 (안기석)

-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단순가담자, 뚜렷한 혐의 사실도 없이 문제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 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달 및 입영영장의 30일전 송달)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광주학살, 고문살인 최루탄 남발 등으로 얼룩진 제5공화국 역사의 비망록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이 극심했던 지난 80년대초 소위 학내에서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젊은 대학생들이 강제로 군에 끌려가 겪어야 했던 비극적 운명에 관한 기록이다.

당시 대학가는 전투경찰과 정보요원들이 학내 곳곳에 상주, 평화적인 학내시위조차 삼시간에 집압당했으며, 시위를 주도한 학생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학생들까지 관할 경찰서로 연행, 구속되거나 가족들 친구들과 식별의 정도 나를 주동한 학생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학생들까지 관할 경찰서로 연행, 구속되거나 가족들 친구들과 식별의 정도 나를 주지 못한채 곧바로 군으로 끌려가야 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부 당국과 마스크의 주도로 학생운동을 '좌경누지 못한채 곧바로 군으로 끌려가야 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부 당국과 마스크의 주도로 학생운동을 '좌경화'로 몰고 갔으며, 학원의 좌경화를 막고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분위에 "체적-구속" '지도휴학-강제징집'이라는 학생운동을 탄압한 두 개의 장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80년 5·17이후부터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천 8백여명. 이들을 1천3백63명이 체적 또는 투옥되었고 나머지는 강제징집 되었다. 전자가 적어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상의 법집 절차를 밟고 진행된 탄압이라 면 후자는 아예 관계법을 무시한 채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이들은 소위 '특수학적 변동자'라는 붉은 낙인이 신상기록카드에 찍힌채 군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 되었으며, 순화와 공작대상으로 간주, 군수사기관에 불려가 20세 전후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일전에 발표된 한 젊은 신인작가의 증편소설(정도상작 '친구는 멀리갔어도', 풀빛출판사간 '밤길의 사람들'에 수록)은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이 군에서 직면하게 되는 체험이 어떠한가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 읽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글은 강제징집실태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국회속기록 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언자들과 직접 인터뷰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써서 건넨 수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들 증언자들은 현재 회사원, 학생, 출판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아직까지 육체적 정신적 상흔은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떠올리기도 싫은 고통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성실하게 증언해 주었다. 이름이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이니셜을 사용하기로 했다.

진혼비를 둘러달라

88년 4월6일 오후 1시경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는 '진혼비를 둘러달라'는 이색집회가 열려 오가는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날 집회는 애당초 고려대 대강당에서 학교대표, 평교수대표,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혼비 복구'를 위한 공개토론회'로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석하기로 합의했던 학교측 대표들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진혼비 복구를 위한 결의대회로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

이날 학생회관 건물에는 '구국의 피맺힌 진혼비여, 너 다시 안암땅에!'('고려대 총학생회 명의), '민족고대 단결하여 진혼비를 복구하자'('고려대 복교복학대책위원회)라고 씌어진 대형 현수막이 드리워졌으며, '강제징집 서러운데 진혼비 철거 웬말이나' 등이 씌어진 피켓들이 여러개 등장한 가운데 허인회(전고려대 학생회장) 등 학생들이 학교측을 성토했다. 평교수대표로 참석한 윤용교수(신문방송학과), 이상신교수(사학과)도 학교측을 비판하는 한편 철거했던 진혼비를 즉각 제자리에 복구할 것을 요구해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88년 고려대 총학생회가 들어서자마자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혼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혼비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81년 11월 9일 발생한 세칭 '고려대 문무대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2차례에 걸쳐 문무대에 입소한 고려대 1학년생들이 문무대 일부 장교들과 마찰, 한 장교가 학생들을 구타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문무대 운동장에 집결, 군사집체훈련에 반대하는 내외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를 순서에서 교가를 불렀다. 그후 교육기간중 유격훈련을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다가 퇴소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측은 체적 19명, 무기정학 1명, 직권휴학 89명등 1백 9명을 징계했고, 이들 대부분은 강제징집되고 말았다.

그후 이들은 '특수학적변동자'로 취급, 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85년에 복학하게 되자 자신들처럼 강제징집되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진혼비를 만든다. 이 비는 그해 4월 17일 민주광장에 전국학생연합 결성식과 더불어 세워졌으나, 4개월이 채 안된 7월 23일 밤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되어 버렸다. 문교부가 '2학기 학내 소요에 선별적 공권력 투입'을 발표했던 날이었다. 며칠 뒤 진혼비가 철거된 자리에서 윤용교수가 퇴약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놓고 앉은채 '항의성 독서'를 해 당시 신문지상에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다 학교를 떠난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학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던 이 진혼비에는 뒷면에 문무대사건 관련자 1백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앞면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뒷면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두황(고려대), 정성희(연세대), 이윤성(성균관대), 한영현(한양대), 최은순(동국대), 한희철(서울대)

의문의 죽음 알려지다

그들의 죽음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84년 3월 8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체적

생과 해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석상에서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식'을 통해 6명의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토로했던 것이다.

이미 그 전해인 83년부터 대학가에서는 학업도중 강제로 군에 끌려간 동료대학생들의 신변에 대해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다. 소위 운동권학생들로 지목되어 군에 강제입영한 대학생들은 최전방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면서 군보안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

당시 이러한 소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믿기 힘든 유언비어로 치부되었을뿐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될 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3년 12월 21일 학생운동에 대해 탄압 일변도를 견뎌 정부당국이 그동안 양산된 체적 학생들에 대한 복교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각대학 복교 대상자들이 결성한 복학대책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마련한 각 대학의 체적생총회 공청회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주제적인 강제징집실태와 군에서의 비인간적인 취급, 정보제공 강요, 관제프락치공작 등에 대해 성토했으며, 강제징집당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84년 2월 20일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가 공동주최한 '진정한 복교를 위한 공개간담회'가 경찰의 장소폐쇄로 무산되자, 이날 간담회 장소인 기독교회관 2층에 미리 들어와 있던 체적학생 1백 40명이 강제징집 철폐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사인 진상규명을 관계당국에 요구하면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에도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합동추모식을 거행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체적 학생들의 요구와 호소에 호응하여 한국기독교장로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성명을 발표, 최초의 공식반응을 보였고, NCC인권위원회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 사회문제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대한가톨릭 학생전국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명동천주교회 청년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도 휴학-강제징집-녹화사업-정보제공강요-의문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과정이 5.17이후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단순히 학원문제나 사회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치책략화 하는 반민족적 행위이자 한국의 인권상황의 비상사태'라고 판단, 공동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집문제 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사망자중 5명은 강제징집자들

이 보고서는 서울의 7대 대학(서울대, 성대, 고려대, 연대, 서강대, 외대, 경희대)과 전남대 등 모두 8개 대학의 복학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입수 분석하고 보고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사망자의 유류품(편지, 일기장, 유서)을 수집, 분석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나온 여러 조사보고서중 가장 방대하고 내용이 자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 잡지에 번역 게재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군입영중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신원, 사망여부, 입대배경과 과정, 사망 당시의 정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영현(1962년 3월 1일생) 81년 한양대 기계과에 장학생으로 입학, 대학 1학년때 민족문화 연구부에 가입했으나 별 활동은 없었다. 83년 1월 중순경 부친의 야학에서 활동하던 한 선배가 연행, 조사과정에서 한군의 이름이 나와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음. 조사가 끝난 후 4월1일 수원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녹막염으로 병중 판결, 그러나 이튿날 경찰출두 명령을 받고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3주후에 한군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어 가족들은 군에 강제징집된 것을 알게 됨. 한군은 입대후 훈련소로 가지 않고 4월 10일에서 18일까지 직접 군수사기관에서 그동안 활동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월에 자대 배치받고 6월 18일에 포상휴가를 받아 나왔다가 귀대후 7월 2일 부대로부터 전보로 자살 통보. 몸이 불편한 형이 가서 시체를 확인, 두 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군부대측의 말은 '6월 30일 밤 탄환을 훔쳐서 다음날 사역도중 오전 10시에 식사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으나 조급후 병커에서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 사망 당시 21세.

△김두황(1960년 5월 23일생) 1980년 고려대 정경계열에 입학. 유복한 집안의 3남3녀중 3남으로 태어나 항상 명랑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주위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학년때부터 경제학과 학회를 담당하면서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학내활동의 활성화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

4학년이 된 83년, 김군을 중심으로 학내 학회 서클 회장들이 축제 및 학도호국단 선거 4.19행사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방향성과 대안등을 계획하던 중 그해 3월8일 성북경찰서에 연행된다. 7-8일 동안 조사를 받고 3월15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가 16일 저녁 부모와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18일 아침까지 미시간 호텔에서 행사들과 동숙.(부모들은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한다.) 18일 아침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어 ○○○

보충대에 입대. 김군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83년 3월 18일부터 6월 18일 사망일까지 약 1백일이 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출 한번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훈련소에서의 훈련성적이 우수하여 사단장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김군의 사망일시는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 6월19일 새벽 군에서 짐으로 연락이 와 사고현장에 가족들(형 두분, 매형 두분)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당시 현장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체 합구했으나,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함. 군에서는 '김군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저녁에는 밥과 누룽지, 빵 등을 먹고 동료2명과 함께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로 갔다. 근무중 동료에게 '소변 보러 간다'고 한후 나가서 잠시 있다가 총성이 났다'고 다시 상황을 설명. 김군의 유품으로 볼펜과 사진 한 장(군에서 찍은 것) 시가 적힌 종이 있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망 당시 23세.

총소리를 들었을뿐

△정성희(1962년 6월 14일생) 81년 연대 영독불 계열에 입학, 한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 그해 11월 25일 연세대 교내시위 현장에서 동료 15명과 함께 연행, 5일후에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군에 강제 입대. 82년 6월 8일 첫 휴가 나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훈련소에서의 생활과 보안대의 감시등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귀대한지 1달후 사망통보가 날아와 정군의 부모는 전방으로 달려갔으나 '82년 7월 24일 새벽 0시 20분경 철책근무중 목에 M16 소총 4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통보와 함께, 유서는 없으며 '백양로를 한번 더 걸어보고 싶다. 죽음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 등 8줄 정도의 낙서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시체확인시 목 이하는 비닐로 싸여 있어 보지 못하고 얼굴만을 보았는데 매우 깨끗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당시 전방훈련차 와있던 조선대 2년생이 자살의 목격자라고 했으나, 가족들의 면담 결과 그 학생은 총소리를 들었을뿐 구체적인 상황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다는 것. 사망 당시 20세

△이윤성(1954년 1월3일생) 5녀 1남중 3대 독자로 태어난 이군은 경기고등학교 재학시절 웅변반에 가입, 서울역광장에서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웅변연습을 할 정도로 활달하며 개방적이었다. 1981년 성군관대 역사철학계열에 입학, 2학년때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서클의 회장직 맡음. 82년 11월 3일 학생의날 가두시위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서클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져 11월 7일 새벽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강제 입대. 당시 이군의 부친은 고령(60세가 넘었음)이었으나 3대 독자인데다 시력이 몹시 나빠 보통의 경우 현역 임명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입대후 건강하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3년 1월 10일경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면회했을 때. 이군은 '내가 여기서 찹밥을 제일 잘먹고 있으니, 걱정말라.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달라고 해라'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러나 제대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5월말경 이군의 부모는 군당국으로부터 이군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는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군이 복에서 날려보낸 뼈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어 죽기 직전까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자대로 돌아가 혁대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하나, 시신처리나 죽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가족들은 일체 합구,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망 당시 19세.

△한희철(1961년 2월 11일생) 1남 4녀중 외아들로 태어난 한군은 79년 서울대 공과대에 입학, 서울대 가톨릭학생회와 성남 대학생연합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 82년 4월 2학기때 휴학을 하고 그해 11월30일 입대, 명랑한 성격과 활발한 적응력으로 성실하게 일해 군간부들에게도 호감을 샀다고 한다. 군생활중에 포상휴가를 두 번씩이나 나왔고 정식휴가는 83년 10월 24일경 나왔는데 친구들에게 '늦어도 한달후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니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귀대후 한군은 군보안대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때 학생운동으로 도피중인 김무현이란 친구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봉일이라는 방위병 친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발각되었기 때문. 한군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학 1년부터 최근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자술서 40여장을 썼고 5일째 되는 날 반성문과 서약서까지 쓰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군이 속한 가톨릭학생회 지도신부와의 면담과정에서 군수사기관이 조사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밝혀졌다.

그해 12월 11일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친이 시체를 확인했을 때 한군이 가슴에는 세발의 총상이 나 있었다고 한다. 군부대측에서는 12월 11일 새벽 4시30분경 보초를 자진 신청하여 M16 소총으로 자살했다고 말하면서 타이핑된 유서를 건네주었다. 그날 오후에 치러진 영결식에는 자살한 사병에 대한 예우로는 볼 수 없는 군악대와 예포가 동원되었다. 사망 당시 22세.

△최은순(생년월일 미상) 81년 동국대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입학, 83년 3월말 시위에비움모로 5명의 동료와 함께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징집됨. 입대 후 몇 개월 후인 83년 8월 14일 사망, 군관계자의 말로는 최군이 고참사병과 함께 보조근무중 사소한 언쟁 끝에 시비가 발생, 최군이 '나는 인생이 끝장난 놈이다'며 고참에게 대들면서 총을 뺏으려는 순간 고참이 오발했으며 최군의 목을 관통했다고 함.

국회에서 문제삼다.

대학생들과 종교, 재야 운동단체들이 강제징집과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 김병오씨는 84년 3월8일 121회 임시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성군관대학생 이윤성과 최경식군의 불법적 입영조치 여부, 강제징집 여부, NCC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6명의 사망 여부, 속칭 '녹화사업' 및 관계 프락치공작의 사실여부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이날 답변에서 권이혁 문교장관은 '5.17이후 대모와 관련 군에 입대한 학생은 모두 4백 65명'이라고 밝혔을뿐 더 이상 자세한 대답은 하지 못했다.

또한 3월 12일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이던 손세일의원이 국회 문교위원회에서 재차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권문교장관은 '병역과 군복무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태관련 입영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복무중에 사망했다는 6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추모집회 잇달아

한편 84년 봄 각 대학과 종교단체에서는 이문제를 여론화하는 집회가 잇달았다. 주요 집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월 20일, 홍제동 성당에서 대학생 제적생 유가족 등 1천여명이 모여 한희철군 추모미사 드림.

△ 3월 30일, 서울대 학도호국단은 오후 1시반 교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희철군 추모제 가짐.

△ 4월 3일, 성군관대 1천 5백여명이 낮 1시부터 동교 금잔디광장에서 이윤성군의 추모식을 갖고 열을 지어 교내를 돈 뒤, 교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경대원과 대치하며 2시간에 걸쳐 교내 시위.

△ 4월 17일 고려대생 2천여명이 김두황군의 추모식을 교내에서 갖고 가두시위.

△ 5월 4일 고려대에서 6개 대학 학원자주율화 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강제징집희생자 합동위령제 가짐.

△ 5월 19일 NCC인권위원회 주최로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등 9개 단체가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강제징집되어 군에서 사망한 6명의 대학생을 위한 추모예배 가짐

마침내 강제징집문제,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6명에 대한 문제로 학원이 들끓게 되자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학적변동 군입영자' 사망경위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했다.

'81년 이후 현재까지 학적변동 사유로 군에 입영하여 사망한 인원은 자살사고 4명, 군기사고 1명 등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적변동과 관계없이 가정사정을 자진 휴학하여 자원 입대 근무중 자살사고로 사망한 1명을 포함한다면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이어 윤국방장관은 이들의 죽음은 특수학적 변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심리갈등과 군기사고로 빚어진 불행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윤성군, 한희철군이 특별한 일과 관련,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했다. 또한 군입대와 관련, 한희철군에 대해서는 자진휴학, 자원입대라는 표현을 썼던 데 비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휴학, 입대라는 표현을 써 강제징집에 대한 가능성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의 답변이 84년 6월 12일자 신문에 보도되자 강제 징집문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5개 단체와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전국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즉각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윤장관은 6명의 강제징집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인 소위 -녹화사업-을 은폐한채, 불법적인 강제징집 자체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현정부는 앞으로도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계속하겠다는것인가?' 라고 반문한 뒤 강제징집 불법성의 사례, 녹화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즉각 중지와 관계책임자 처벌, 윤성민 국방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제징집의 사례

이들 종교, 재야 운동단체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강제징집과 군에서 사망(자살사건 사고사건)한 6명 학생들의 근본적인 사인으로 규정된 '녹화사업'이란 무엇인가?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단순가담자, 뚜렷한 혐의 사실도 없이 문제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달 및 입영명장의 30일전 송달)를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징집 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위 단순가담자로 경찰에 연행된 경우-이것은 시위현장이나 그 주변에서 사복경찰 전경대원 정체불명의 청년들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연행, 조사과정을 거친후 곧바로 강제 징집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는 협박과 회유 등으로 입대동의서에 날인을 권유한다. 이 자원입대 서류에 날인하면 이것을 근거로 당일 또는 수일내로 입영하게 된다. 일단 입영된 후 사후처리는 '지도휴학'이라는 학칙상의 제도를 통해 합법화 된다.

84년 4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있었던 NCC 인원위원회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증언한 황연구씨(79년 연세대 입학)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때(81년 11월 25일 연세대 학내시위때) 그 학생(군에서 사망한 정성회군)이 사복경찰에 둘러싸여 매를 맞고 있더군요, 저는 키만 크지 몸무게가 별로 안나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로 뛰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초를 사이에 두고 저희 머리카락은 누군가의 손에 잡히고 또 팔도 잡히고 몇초 후 자가용이란 데 태워졌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밤 12시까지 조사를 하면서 땀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 한 형사가 무릎을 계속 밟으면서 '이 자식이 너 적극적으로 데모에 관련했지'라고 다그쳐 '아닙니다.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장으로 보내더군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혼방되고 15명이 남아 28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경15명이 나타나 저희 15명을 하나씩 끼고서 닭장차에 태웠습니다. 그 안에서 '군대가서 고생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문제학생으로 지목되면 강제징집

△ 사찰기관에 의해 문제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강제징집이 학생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각 대학 관할경찰서, 정보기관 등이 작성한 문제학생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학기중이나 방학기간중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행되어 군에 입대된다는 것. 이 때 강제징집 대상에 오른 학생은 이른 새벽 혹은 밤늦은 시간에 집에 서 경찰의 기습적 방문을 받고 연행되어 학생활동중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직권휴학과 더불어 경찰서에서 군에 바로 강제 입대된다.수색영장도 없이 해당 학생의 집을 살살이 뒤져 노트 일기장 연습장 등의 메모나 낙서 등을 가지고 "유인물 초안이다" "시위의 주동을 계획했다" 등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시키지 않는대신 군에 입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근영씨(서울대 80학번)의 얘기를 들어보자.

"83년 봄학기부터 학내에는 강제징집자 명단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로 지하서를 회장과 시위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로 인문대 11명 사회대 10명으로 알려졌는데, 그 해 여름방학중인 8월경 내부부장관이 각 대학에 명단을 내려 보내고 '데모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안 받으면 군대 보내겠다'는 요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인문대 사회대에서는 교수회의가 열려 인문대 찬반동수, 사회대 반대로 부결되면서 그 명단이 학생들에게 흘러나왔다.

당시 대상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나는 10일쯤 지나 춘천 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춘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행되었다. 8월 18일 경이었다. 관악경찰서에서 지도휴학 당하겠느냐, 자의로 휴학을 하겠느냐, 양자선택을 요구해 자의 휴학을 선택, 동대문 경찰서로 갔더니 나와 같은 경우인 다른 대학생 20여명이 먼저 와 있었다. 그 길로 바로 춘천에 있는 한 보충대로 끌려갔다."

▲ 학생대표로 일한 것이 문제되어 지도휴학된 경우- 학도호국단 간부, 과대표, 혹은 학내행사 준비위원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하려 한 것이 경찰이나 학교당국의 자숙요구와 마찰을 빚어 지도 휴학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행사도중, 혹은 행사이후에 연행 조사받으며 그 뒤 교수의 권유형식으로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시위 주동학생이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83년 2학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 있는데, 시위 주동학생들을 구속 대신 강제징집시킨 것이다. 이는 80년 5.17이후 연이은 시위-구속으로 수감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정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악화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념서클에 관련되었다든가 야학교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지도휴학된 경우-1981년초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을

대량 검거한 소위 '무림사건'이후 학내외의 서클 및 야학 심지어는 교회7대학생부의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강제징집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에 불법 연행되어 수사를 거친후 학교의 지도휴학 조치와 더불어 곧장 경찰서에서 군에 입대하게 된다. 현재 출판업에 종사하는 H씨(81년 당시 서울대 2년생)가 대표적인 예.

H씨는 81년 1월 무림사건관련으로 남산 및 시경대공분실에 끌려가 10일동안 조사를 받고 '군대 안가면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승낙, 군대가는 조건으로 조사를 끝내고 관악서로 이첩되었다.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강제징집 당했다. 그해 2월 4일 통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신체검사를 했으나 5.2디오퍼로 눈이 몹시 나았으나 '의사가 좀 쉬고 오라며 눈을 좋게' 해주었다. 3디오퍼로 허위기재한 것. 그때 H군은 형 결혼식도 있고 아버지 생신도 있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과 면회만 하고 2월 18일 입대하게 된다. H군의 진술에 의하면 관악경찰서 형사가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을 원합니다.'라는 휴학원에 H군 도장을 파와서 자기가 찍었다는 것.

그외에 ▲ 교내유인물, 스티커 사건 등에 관련된 경우 ▲ 불심검문에 걸려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되는 경우 ▲ 학내 활동과 관련 유기 및 무기정학 등으로 처벌할 대상자들을 처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교수와 경찰이 중용하여 자진 휴학 형식으로 군입대시킨 경우등이 있다. 마지막 경우는 반드시 강제징집이라고 할수 없으나 일종의 지도휴학 범주에 속한다.

신체 결함자도 징집

정상적으로 학적 변동이 되어 군에 입대하는 학생들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학적 변동자'로 강제 징집된 학생들의 경우 주목해야할 사실은, 신체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가정한정상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입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입대시킨 점이다. 앞서 학내시위와 관련 강제징집된 황연구씨는 시력이 나빠 방위대상자였는데 현역으로 입영되었다. 따라서 병역수첩에는 방위편성대상자로 되어 있고 복무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대중에는 3년 동안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충대에서 신체검사하는 중에 나타난것인데, 저희들(강제징집된 15명의 연세대생)중에는 골수염수술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말쑥해 보이지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군의관들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된다고 한 것이 7명이었습니다. 15명중에는 3대독자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평가를 내렸는데도 군의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니만, '안된다 애들은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체정상(83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83년 4월 15일 교내시위 단순가담과 관련 징집, 신체검사 다시 체중이 징집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체중을 재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결정 기재. 2대 독자로 보충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다 6개월후 의가사 제대.

▲ 최창환(81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석탑 측제시위와 관련 83년 5월 징집. 홀어머니(당시 51세)의 외아들로 징집 면제대상자였는데, 현역으로 입영. 84년 2월 23일 의가사제대.

▲ 이정록(83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83년 5월 26일 가두시위 단순가담으로 징집. 중학교까지만 해도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아마비자였음. 5월26일 강제징집 당시에도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의 이상이 있었음.

▲ 이재현(80학번 고려대 철학과) 83년 9월 26일 교내 유인물 배포 혐의로 징집. 83년 4월 신체검사시 시력과 측농증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강제로 병무청 직원이 가지고 온 영장에 지장을 찍게하고 입대시킴.

▲ 이정철(83학번 고려대 사학과) 83년 11월 2일 교내시위 단순가담과 관련 징집. 65년생으로 강제징집 당시 병역법상 연령미달(징집연령은 19세인데 18세였음)

▲ 최경식(81학번 성균관대 국문학과) 83년 3월 30일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징집. 당시 키 153cm 43kg으로 신체 조건상 군에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되었으나, 군대내에서의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아 경찰서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며칠동안 연금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군에 입대시켜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으로 입대시킴.

이외에도 간질환자, 간염환자 및 평발, 신장초과 등으로 현역입영대상자로는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강제 징집된 경우도 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84년 5월 2일자로 [대학생 강제징집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방부 장관앞으로 발송, 연령미달자, 신체상 부적격자, 보충역대상자들이 병역법상의 절차와 기준이 무시된 채 강제징집된 사실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회신 공문을 발송, [...다만, 본인이 군입대를 희망하거나 학교 및 연수과정에서 체적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징집연기 사유가 소멸되므로 병역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부과는 오로지 법절차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녹화사업]이란 무엇인가

결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강제징집자에 대한 조기입영조치의 합법성은 [제적이나 휴학처분]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여기에서 언급된 휴학처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 이른바 말뚝배기 [지도휴학제]이다. 80년대 초 서울의 주요 대학의 학칙을 조사해보면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지도휴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79년 10월 서울대에서 제일 먼저 학칙에 신설하였고, 그후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칙에 삽입하였는데,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항은 대부분 학생본인의 의사나 객관적 판단기준 없이 총장이 직권으로 직접 휴학을 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동적인 명문으로 정평이 나있는 유시민씨(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의 항소이유서에 주목할만한 기록이 있다.

[...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둔 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계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벼를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數百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대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로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별거승이 산을 푸른나무로 채우려는 산림청의 사업정도쯤으로 이해될만한 [녹화사업]이란 용어는 여러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입수와 탄압을 위한 수사기관의 순화 및 공작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특수학적변동자]로 처리돼 강제 징집된 학생들은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돼 순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군보안대는 반체제 반정부의식에 물든 이들 운동권학생들을 일단 [과격 용공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붉은 색깔에 가까운 의식을 푸르게 녹화시킨다]는 것이 소위 [녹화사업]의 [기본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국군보안사령부는 82년경부터 녹화사업을 전담하는 특별 심사과를 신설, 순화사업과 프락치 공작사업을 병행토록 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정규대학 출신의 중위급 단기장교를 선발, 특수학적변동자들이 복무하던 전방 일부 사단에 배치, 녹화사업을 담당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화사업의 내용은 가정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 대학생까지 전과정을 상세히 쓰게 할 뿐 아니라, 대학서클에서의 의식화과정 세미나 내용 자신이 읽은 소위 이념서적이 내용요약 등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쓰게 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다. 일종의 의식상태를 심사하는 작업인 것이다. 81년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 대상자였던 H씨(28세 이 첫 작업이었다. 일종의 의식상태를 심사하는 작업인 것이다. 81년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 대상자였던 H씨(28세 출판사원)의 말을 빌려 [뇌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털어 놓아야 자술서 쓰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 및 과천의 보안사 분실 및 각 지역 보안대에서는 이들 특수학적변동자들을 재심사(A급은 서울, B급은 지역보안부대에서 실시)하여 순화작업에 들어간다는 것.

관계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

순화작업은 국가관이나 특별주제에 관한 글을 쓰게 하거나, 남북 분단현실에서 반공의식 강화의 필요성과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역설, 정부나 체제에 비판적인 의식을 안보논리에 입각한 체제긍정적 의식으로 개조해 나간다. 이 때 대부분의 특변자들은 순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쓸 뿐 아니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판의식을 무너뜨려 가치관의 혼란과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빠지기도 한다.

"오로지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판단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치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3년에 강제징집되었던 K씨(27세, 회사원)의 이야기다.

강제징집 학생들은 짧으면 보름, 길면 두달까지 이러한 순화를 위한 재심사를 받아서, 일단 순화되었다고 판단되면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 반성문은 대개 자신의 대학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서약서는 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입밖에 내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하게 되면 군기법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사후 보안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눈 딱 감고 지장을 찍어 버렸다"는 이 증언자가 회상한 서약서 내용요지이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이보다도 훨씬 힘든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순화]된 학생에게 관계프락치 임무를 부여하여 정보수집에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휴가형식으로 사회에 나와 재학시 활동하였던 서클 선후배를 만나 활동상황, 학원전반의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집된 학생들은 군대라는 조직사회속에서 협박과 회유, 고문 등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공포와 친구들을 배신해야 한다는 양심의 갈등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야 한다. 구체적인 체험을 들어보자.

현재 노동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C씨(27세)는 82년 9월 20일경 밤늦게 집에 들어와 막 잠자리에 든 순간 들이닥친 K경찰서 소속 형사 2명에 의해 연행된다. 이 때부터 그의 운명은 강제징집-녹화사업의 [땃]에 걸리게 된다.

잠자리에서 연행된 C씨

그는 당시 S대 3학년으로 공개서클의 장을 맡아 학내 주요 공식집회의 실무를 맡아왔다. 82년 여름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국내에서는 일본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대학가에서는 민족 자주성을 각성시킨다는 의미에서 2학기 시위의 주요 이슈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내 각 대학들은 9월 25일을 D-DAY를 설정, 광화문시위를 결의했고, S대의 경우 C씨가 여러 학내 공개 서클의 장들과 함께 계획을 짜는 등 실무를 맡았던 것이다.

C씨가 특별히 경찰 정보요원들로부터 주시당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개집회에서도 C씨가 기록을 담당했던만큼 정보요원들의 눈에 쉽게 띄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연행 즉시 K경찰서 2층 취조실에 내팽겨쳐졌다. 2, 3명 되는 방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하나뿐이었다.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결의문이 나왔지?"라는 질문과 함께 형사는 C씨의 몸수색을 시작, 광화문시위 준비내용이 촘촘히 적혀진 메모용지를 발견했다. C씨는 그 때 속으로 '끝장났구나' 생각하며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누구랑 모의했지?"

그는 동료들의 이름을 들먹일 수밖에 없었다. 거명된 동료들은 이내 경찰서로 연행되고 이어 눈을 붙일 틈도 없이 분리심문에 들어갔다.

"배후조정선이 있으니 대!"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 따귀를 맞고 엎드려 뺨쳐자세로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 그후 전투경찰 1명이 지하실로 끌고가 이단 열차기로 차고, 쓰러지면 짓이겨 버리는 등 실신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크게 소리내어 울기도 했고 복부에 맞으면 속이 뒤틀러 호흡하기도 힘들었어요. 30분정도 실컷 맞고 난 후 할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야기하겠다고"

그러자 담당형사가 들어와 식당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쇠고기요리를 먹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잡혀 온 다른 동료들과 함께 큰 방으로 옮겨져 비교적 숨통을 트고 생활하다가 입대권유를 받는다. 시위에 비음모죄로 구속될 것이냐, 군대에 갔다 올 것이냐 양자택일 하라는 것. C씨는 징집영장에 지장을 찍었다. 그 다음날 아침 C씨와 동료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춘천부근의 000보충대에 입대, 군생활을 시작했다.

"이 정도 고문은 약과야"

사단에 배치되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C씨는 훈련 4주가 지난 어느날 아침 "명찰을 단 A급 군복상태에서 대기하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대대장과 함께 짐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천읍내에 소재한 사단보안대. C씨는 사단보안대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대 짐차에 갈아타야 했고, 그 짐차는 경춘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C씨는 서울 종로에서 내려 사복차림의 사단보안대 중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S동 어느 양육 대문앞에 도착했다. 사단보안대 중사는 C씨를 인계한 후 돌아가버리고 보안사분실 기간병 1명이 나타나 C씨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복도에 세운 채 마구 구타, C씨는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

C씨는 사무실로 끌려가 위관급 장교와 대면, 고향, 본적, 가정, 학교 생활 등에 대한 형식적인 심문을 받은 후 어느 서클 어느 교회에서 활동했는지 질문받는다. 서클 이름을 대지 않고 얼버무리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바른 말 안해? 정신차려야겠군. 취조실로 데리고 가"

취조실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양변기 침대 책상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높은 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C씨는 군복을 벗기우고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군복으로 갈아입혀졌다.

"이 자리는 80년도 $\times\times\times$ 가 죽도록 고생했던 자리다. 여기가 어딘줄 아나?"

C씨는 취조시작 무렵 오갔던 대화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했다. 그 순간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것. 저녁식사 후 취조요원 2명이 들어와서 본격부터 다시 묻기 시작, 지하서클 및 야학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취조요원들은 C씨가 서클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 물고 늘어졌고 C씨는 자신이 은밀히 관여했던 지하서클만은 보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완강히 거부했다. 엎드려 뺨쳐 자세에서 계속 몽둥이찔질을 가해도 C씨가 계속 거부하자 다른 사람들을 호출, 4,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1초내로 웃어버"